



## 종합합금철 메이커로서의 역사를 개척해 나가다

대한민국 합금철 산업을 선도해 온 SIMPAC메탈로이.  
1959년 설립 이후 고객 여러분이 보내준 변함없는 신뢰에 보답할 수 있도록  
종합합금철 메이커로서의 새 역사를 개척하는 데 앞장 서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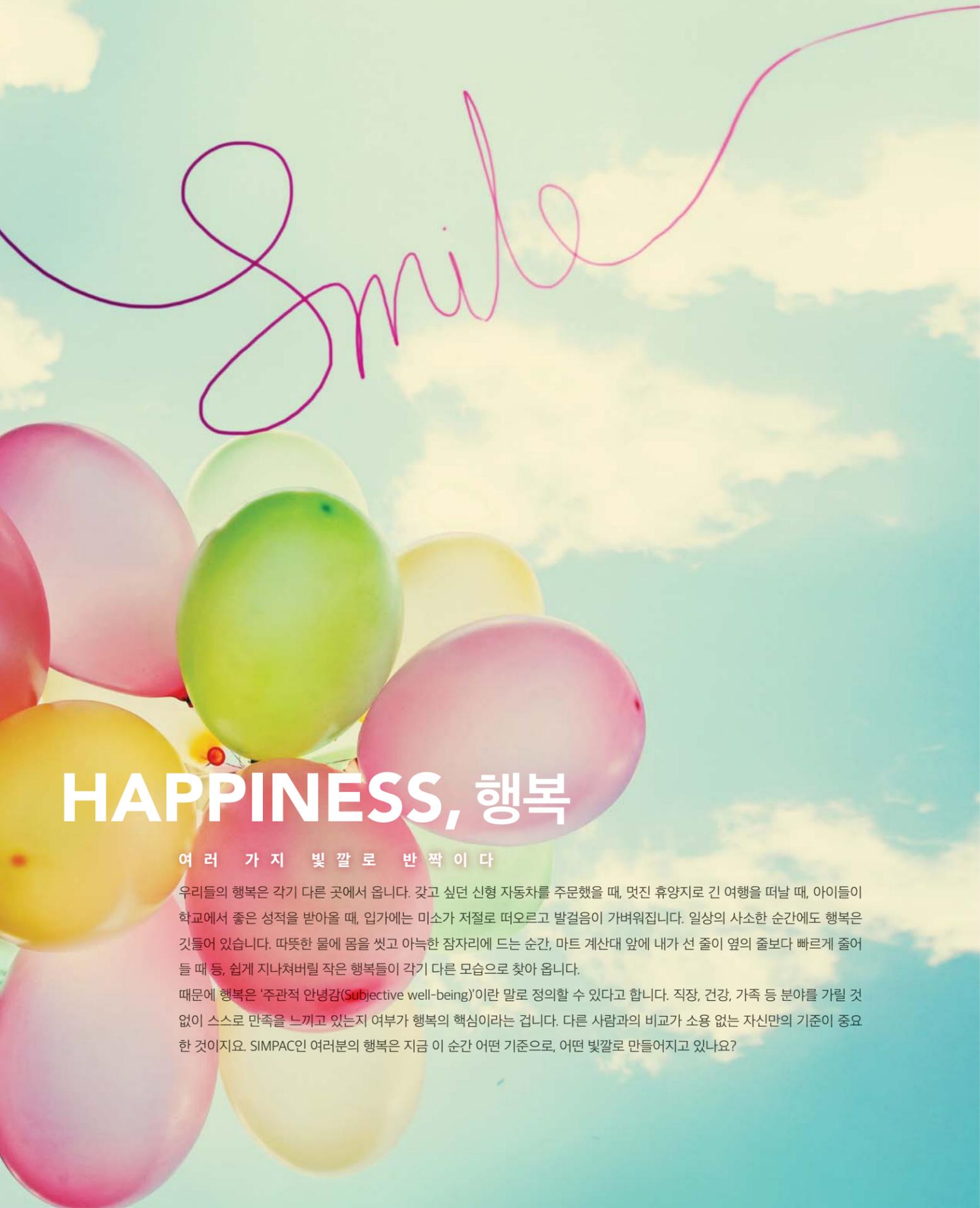
### 국내 최초, 합금철 개발 및 생산

SIMPAC메탈로이는 지난 1959년, 국내 최초로 제강공정의 필수소재인 합금철을 개발, 생산하며 산업 발전에 기초가 되는 철강분야에 일익을 담당해 왔습니다. 반세기가 넘는 세월 동안 SIMPAC메탈로이만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품질에 대한 명성을 꾸준히 이어 왔습니다.

### SIMPAC메탈 설립, 종합합금철 메이커로 발돋움

SIMPAC메탈로이는 지난 2011년, 고순도 페로망간 생산을 위한 SIMPAC 메탈 당진공장을 설립함으로써 폭넓은 합금철 포트폴리오를 완성, 명실공히 종합합금철 메이커로서의 성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진출 전략에 발맞추어 세계 유수의 철강업체들이 활동하는 국제망간협회 IMnI(International Manganese Institute) 총회를 국내 최초로 유치하는 등 세계 합금철 산업의 중심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 HAPPINESS, 행복

여러 가지 빛깔로 반짝이다

우리들의 행복은 각기 다른 곳에서 옵니다. 갖고 싶던 신형 자동차를 주문했을 때, 멋진 휴양지로 긴 여행을 떠날 때, 아이들이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받아올 때, 입가에는 미소가 저절로 떠오르고 발걸음이 가벼워집니다. 일상의 사소한 순간에도 행복은 깃들여 있습니다. 따뜻한 물에 몸을 씻고 아늑한 잠자리에 드는 순간, 마트 계산대 앞에 내가 선 줄이 옆의 줄보다 빠르게 줄어드는 때 등, 쉽게 지나쳐버릴 작은 행복들이 각기 다른 모습으로 찾아 옵니다.

때문에 행복은 '주관적 안녕감(Subjective well-being)'이란 말로 정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직장, 건강, 가족 등 분야를 가릴 것 없이 스스로 만족을 느끼고 있는지 여부가 행복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의 비교가 소용 없는 자신만의 기준이 중요한 것이지요. SIMPAC인 여러분의 행복은 지금 이 순간 어떤 기준으로, 어떤 빛깔로 만들어지고 있나요?

## SIMPAC 더하기 행복



04 행복을 만드는 사람들	SIMPAC인과 협력업체 직원들의 살아가는 이야기
27 Letter from SIMPAC인	당신을 칭찬합니다
28 기획칼럼	당신이 원하는 행복은 어떤 모습입니까?
32 차 한 잔 나누며 Talk Talk	SIMPAC인더스트리 가좌공장 생산팀의 산업기계Part와 공작기계Part, 그리고 품질지원팀
36 우리 팀을 소개합니다	SIMPAC인더스트리 남동공장 주조팀 생산관리Part
40 다락방	SIMPAC인의 가을 나들이
44 SIMPAC NEWS	SIMPAC 소식
47 우리들의 이야기	축하합니다

SIMPAC STORY 2014년 AUTUMN | 통권 28호 | 발행인 최진식 | 발행일 2014년 10월 20일 | 발행처 SIMPAC홀딩스 02-3780-4907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52 심팩빌딩 13층 | 기획 ㈜IR큐더스 02-6011-2000 | 편집 및 디자인 ㈜IR큐더스 02-6011-2000 | 인쇄 삼진커뮤니케이션즈

사보 담당자							
㈜SIMPAC홀딩스	이승훈 대리	02-3780-4906	gausy@simpac.co.kr	㈜SIMPAC홀딩스	이윤기 사원	02-3780-4923	wklee@simpac.co.kr
㈜SIMPAC홀딩스	정제린 대리	032-590-2020	jljung@simpac.co.kr	㈜SIMPAC	이혜정 사원	032-510-0020	hjlee@simpac.co.kr
㈜SIMPAC인더스트리	민혜림 사원	032-590-8817	hrmin@simpac.co.kr	㈜SIMPAC메탈로이	선광규 대리	054-271-8724	kgsun@simpac.co.kr
㈜SIMPAC메탈	이준기 대리	041-360-0124	jklee@simpac.co.kr				

# “행복을 만드는 사람들”

## SIMPAC인과 협력업체 직원들의 살아가는 이야기

사람들은 언제나 행복을 찾으려 하고, 그 순간을 그려봅니다. 멋진 집, 성공한 자신의 모습 등을 끊임없이 상상하며 행복을 꿈꾸죠. 여러분의 행복은 어떤 모습인가요? 그리고 그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혹시 집 앞 정류소에서 버스를 기다리듯 행복을 기다리고만 있는 것은 아닌지요. 여기 적극적으로 자신의 행복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삶의 재미를 더해주는 취미생활에서부터 보람을 얻을 수 있는 일까지. 다양한 곳에서 스스로 행복을 찾는 이들을 만나보았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동료 SIMPAC인, 그리고 그들의 일터를 풍요롭게 하는 협력업체 직원들의 이야기입니다.



01

노력 끝에 결실을 맺는 '스마일 맨'

▶ SIMPAC홀딩스 이엔지부문  
생산기술팀 박기원 사원

02

마음을 듬뿍 담아 맛을 내는 '요리왕'

▶ SIMPAC홀딩스 이엔지부문  
생산기술팀 구미영 사원

03

맛있는 식사와 영양을 책임지는 '미소 천사'

▶ SIMPAC 안보미 영양사

04

밝은 에너지로 주변을 밝히는 '친절 지킴이'

▶ SIMPAC인더스트리 배영범 경비

05

페달을 밟아 활력을 얻는 '사이클의 달인'

▶ SIMPAC메탈로이 전기로 A조 김삼철 선임

06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공정왕'

▶ SIMPAC메탈로이 Ro제영팀 김재희 대리

07

자연 속에서 기쁨을 누리는 '낚시의 고수'

▶ SIMPAC메탈 품질물류팀 김형근 사원



특별히 좋은 일이 있어서 웃는 건 아니다. 평소 밝은 표정과 웃음기 어린 얼굴로 유명한 SIMPAC 홀딩스 이엔지부문 생산기술팀 박기원 사원은 늘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생활하는 '스마일 맨'이다. 만면에 웃음을 머금고 있어 주변 사람들도 밝은 기운을 전하는 그는 올해 가을 경사를 앞두고 있어 더욱 행복해 보인다. 무한 긍정 에너지의 비결이 궁금해 몇 가지 물어보았다.

어디서나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직장인의 모습이지만, 유독 박기원 사원의 표정은 밝다. 뭔가 기분 좋은 일이 있거나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 것일까, 알고 싶어진다.

“대부분의 직장이라는 곳이 업무에 열중하느라 분위기가 딱딱해지기 쉽잖아요. 더구나 현장에 있으면 긴장하며 일하기 때문에 분위기가 가라앉기 쉽습니다. 2년 전 봄, SIMPAC홀딩스 이엔지 부문에 입사했을 때 신입 사원으로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현장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이었습니다. 경직된 분위기 탓에 먼저 나서서 말하기도 망설여지고 여러모로 적응하기가 쉽지 않았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막내인 내가 먼저 웃으며 다가 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면서 차츰 동료들과 소통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관리자와 작업자의 경계를 허물고 격의 없이 다가갔죠. 조금씩 서로를 이해하면서 분위기도 한결 좋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런 그의 밝은 성격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  
 “저희 어머니가 무척 활발한 여장부 스타일이예요. 가족은 물론, 이웃과 친구 등 주변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 시죠. 저도 그 영향을 받아서인지 친구들을 웃게 만드는 재주가 있는 것 같아요.”

**‘스마일 맨’으로 통하며 동료들까지 기분 좋게 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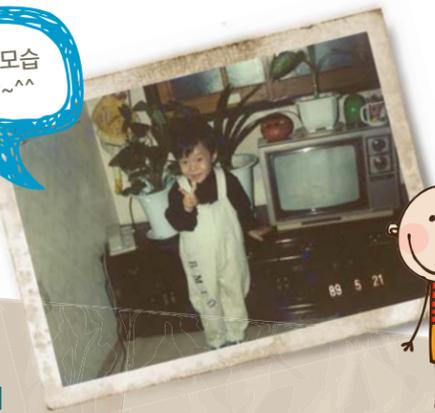
인천에 거주하는 박기원 사원은 취업을 준비하면서 ‘SIMPAC’이라는 회사를 알게 되었다. 관심이 생겨 회사에 대해 꼼꼼히 알아보고 확신이 들자, 주저 없이 지원했다. 그렇게 SIMPAC홀딩스 이엔지부문에 입사하면서 사회 생활의 첫 발을 들여놓았다고 한다. 그런 그가 일하면서 가장 즐거운 순간은 언제일까?

“어느 새 입사 2년차가 되었습니다. 저는 생산기술팀에서 절단Part를 담당하고 있는데, 보통은 도면을 보고 절단 작업을 합니다. 그러다가 도면 보다 더 나은 방법이 생각나면 제 의견을 선임자에게 말씀드리죠. 그대로 진행해보라는 허가가 떨어져 그대로 작업한 후, 좀 더 쉽고 효율적이라는 평을 들을 때 많은 보람을 느낍니다. 아이디어가 작업에 반영되고, 나아가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되었을 때 정말 뿌듯하답니다.”

사람의 기분은 사소한 일에도 즐거웠다가 화가 나고, 만족스러웠다가 우울해지곤 한다. 하다못해 그날의 날씨에 따라서 기분이 좌우되기도 한다. 그렇지만 박기원 사원은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어 힘들더라도 내 얼굴 표정에 그 감정이 그대로 묻어나면, 다른 이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내가 즐거워야 남도 즐겁게 일할 수 있으니, 회사에서는 마인드 컨트롤을 하듯 스스로 즐겁고 유쾌한 기분을 가지려고 노력합니다.”라고 말한다. 같은 부서의 정제린 대리는 “박기원 사원은 우리 회사에서 ‘스마일 맨’으로 통합니다.”라고 설명해 평소의 그의 모습을 짐작할 수 있게 했다.



제 어릴 적 모습  
어떤가요?~^^



### 긍정적 마인드 가진다면 좋은 결실 맺으리라 믿어

박기원 사원은 요즘 설레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원래도 밝은 성격이지만 요즘엔 그의 얼굴이 꼭 폼다. 오는 11월에 결혼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초등학교 동창인 여자친구와의 7년 연애 끝에 드디어 결혼에 이르게 된 것이다. 올해로 꼭 서른 살, 그리 많지 않은 나이지만 그는 결혼을 앞두고 진짜 어른이 된 것 같은 책임감을 느낀다고 한다.

“가정을 꾸리는 데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먼저 큰 책임감을 느낍니다. 회사에서 맡은 바 최선을 다하고 가정에서도 자상한 남편으로서 주어진 역할에 충실할 것입니다. 아이들이 있는 가정을 보면 부러운 마음이 커서 결혼 후 2세를 낳아 어떻게 키울지도 요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이와 함께 여행을 다니며 시간을 함께 하는 좋은 아빠가 되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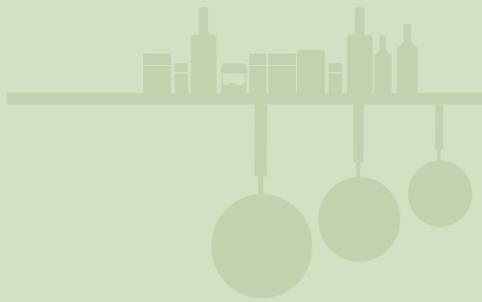
그는 또 평소 자신이 생각하는 생활신조를 들려주었다.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자신에게 확신이 있는 사람은 언젠가 좋은 결실을 맺게 될 것입니다.”

“세상만사 모든 것이 믿는 대로 이뤄진다고 생각합니다. 할 수 없다고,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일이 이뤄지지 않는 것이죠.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행동이 추진력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할 수 있다고, 반드시 된다고 생각하면 능동적으로 도전하고 행동하게 됩니다. 그만큼 성공할 확률도 높아지겠죠. 스스로 어느 쪽에 있는 사람인지 생각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 매사에 즐거운 마음으로 임하면 일의 능률도 오를 것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는 말처럼 매사에 즐거운 마음으로 임하면 일의 능률도 오르고 스스로 뿌듯하고 보람찬 기분을 느끼게 된다고 말하는 박기원 사원. 그는 ‘고진감래(苦盡甘來)’라는 고사성어를 언급하며 SIMPAC인들에게 응원 메시지를 전했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말처럼 노력이나 고생 없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성과는 없습니다. 고생 끝에 얻은 결실은 그만큼 값지고 귀하지 않겠습니까? 현재의 수고와 열정은 내일의 값진 결과로 돌아올 것입니다. SIMPAC인 여러분, 모두 함께 힘냅시다!”



마음을 듬뿍 담아서  
맛을 내는 '우리요리'

SIMPAC홀딩스  
이엔지부문  
생산기술팀  
구미영 사원

소박하지만 정성껏 차려진 식탁에 둘러 앉아 좋은 이들과 맛있는 음식을 나누는 시간은 가장 행복한 순간이 아닐까. 가족, 친구 등 사랑하는 사람들이 맛있게 먹는 것만 봐도 뿌듯해 그 기쁨을 위해 요리를 즐긴다는 사람이 있다. SIMPAC홀딩스 이엔지부문 생산기술팀 구미영 사원이 그 주인공. 그녀에게 요리는 취미이기도 하고, 놀이이기도 하다. 27살 아가씨가 똑딱 만들어 내는 요리에는 어떤 사연이 있을지 궁금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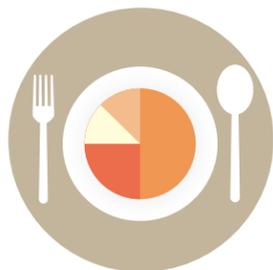


음식으로 배를 채우기만 하던 시절은 갔다. 먹는 행위가 다양한 음식을 맛보고 즐기는 하나의 문화 활동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갈수록 요리를 취미로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인터넷에 자신만의 특별한 레시피를 올리고 공유하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러한 트렌드 속에 아직 자기 살림을 하진 않지만 한 끼를 먹더라도 먹음직스럽게 모양을 내 요리하는 것을 즐기는 싱글들이 있다고 한다. SIMPAC홀딩스 이엔지부문의 구미영 사원이 그렇다. 검단에서 만난 그녀는 핸드폰으로 찍은 자신의 요리 사진들을 자랑스럽게 보여준다.

떡볶이, 불고기, 굴 소스를 넣은 해물볶음밥, 고추장 삼겹살, 부추전, 훈제 오리 구이 등 사진만 봐도 군침이 돌 정도로 먹음직스럽다. 떡볶이 하나도 범상치 않다. 냄비 가운데 치즈를 얹고 주변에는 군만두를 놓은 치즈 떡볶이, 고추장 대신 춘장으로 만든 짜장 떡볶이 등 다양하게 응용해서 만들어낸다. 특히 햄, 치즈, 만두 등 사리를 이것저것 넣어 풍성해 보이는 떡볶이의 맛이 궁극적이다. 시집도 안 간 아가씨가 언제부터 이렇게 요리에 취미를 붙였을까. “대학 시절부터 인터넷 블로그에 사람들이 올린 요리 사진을 보고 레시피를 그대로 따라해 보면서 흥미를 갖게 되었어요. 전문 요리사도 아닌 평범한 사람들이 올린 사진들이 꽤 화려하고 먹음직스러웠거든요. 그렇게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레시피들을 참고해 조금씩 요리에 도전하기 시작했어요.”

**정성껏 만든 음식을 가족, 친구들이 맛있게 먹어줄 때 큰 기쁨**

처음에는 수제 초콜릿을 따라서 만들었는데 의외로 성공하며 자신감이 붙었다. 그 이후 구미영 사원은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떡볶이를 다양하게 변형해 만들어 보았다. “매운 맛을 굉장히 좋아해서 떡볶이를 만들 때면 캡사이신을 조금 넣어요. 저처럼 매운 요리를 좋아하는 분이라면 특유의 톡 쏘는 맛에 만족하실 거예요.” 구미영 사원은 친구들을 집으로 불러 요리 대접하는 것을 즐긴다고 한다. 어머니를 닮아 제법 손이 커서, 한 번 음식을 하면 푸짐하게 내온다고. “가족과 친구들이 제가 만든 음식을 맛있게 먹어줄 때, 그 모습만 봐도 제가 더 기쁘고 행복한 기분을 느껴요. 동생이나 친구들에게 맛이 어떠냐고 물어보고, 맛있다고 좋아할 때 요리하는 재미를 느끼게 된답니다. 그런 기쁨이 있어서 제가 요리를 계속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마 혼자 먹어야 한다면 이렇게 공들여 요리하지 않았을 거예요.” 주말에 약속이 없을 때면 주로 집에서 요리를 한다는 그녀. 가족이 좋아하는 불고기, 삼겹살 구이로 특별한



기분을 낸다. 그래서 주말이 다가오면 어떤 메뉴를 할까 고민 끝에 결정해서 직접 장을 보고 요리를 한단다. 어머니도 딸이 요리하는 것을 무척 좋아하신다고 한다. “어릴 때 엄마가 해주는 음식 중 ‘꽃게탕’이 가장 맛있었어요”라며 기억을 떠올리는 그녀는, 이제 어머니가 좋아하는 요리를 자신의 손으로 해드리고 싶다고 말하는 기특한 딸이다.

**워크샵에서 동료들에게 특별한 요리해 주고 싶어**

여성적인 외모에 요리까지 즐기는 구미영 사원을 보면, ‘천상 여자’라는 느낌이 든다. 구미영 사원은 지난해 2월, SIMPAC홀딩스 이엔지부문에 입사했고 현재 프레스 구조물 도면 단품설계(3D)를 담당하며 대형Part의 3D 컷팅플랜을 주 업무로 하고 있다. 어찌 보면 정밀하고 섬세한 설계 업무와 그녀의 요리가 닮아 있는 듯도 하다. 팀원들에게는 요리를 대접할 기회가 없어 아쉽다는 그녀는 얼마 후에 있을 워크샵에서 제대로 실력 발휘를 하겠다고 버린다. “예전에 워크샵을 갔을 때 김치찌개를 한 적이 있어요. 이번 워크샵에서는 좀 더 특별한 요리해 주고 싶습니다. 말로만 요리왕이 아니라 선후배, 동료들에게 진짜 요리왕의 면모를 보여줘야겠죠.” 팀원들도 구미영 사원의 요리 솜씨를 무척 기대하는 눈치다. 맛집을 찾아 다니는 것 역시 즐긴다는 그녀는 미식가이기도 하다. 맛을 볼 줄 아는 미식가이니, 요리도 그만큼 잘해내지 않을까? “제가 정성껏 만든 음식을 주변 사람들이 맛있게 먹을 때 저 역시 즐거워집니다. 그래서 음식은 사람 사이를 더 가깝고 친근하게 만드는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자신이 만드는 음식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나누는 것은 소소하지만 제법 인생의 활력소가 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누구라도 좋아하지 않는 사람에게 자신이 만든 요리를 대접하고 싶지는 않을 것이다. 정성이 들어간 음식을 나누는 것은 그 자체가 마음이고 정성이기 때문이다. 그만큼 음식은 사람 사이에 정을 키우고 우애를 다지는 훌륭한 매개체가 된다.



구미영 사원은 “SIMPAC인들도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나마 여유를 가지며 사랑하는 사람들과 맛있는 음식을 나눠 먹으면서 소소한 행복을 느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한다. 정을 나누는 법을 아는 그녀를 만나고 돌아오는 길, 저녁에 가족을 위해 소박하지만 마음이 담긴 요리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 맛있는 식사와 영양을 책임지는 '미소천사'



청명한 가을 날씨에 기분까지 한껏 들뜬 요즘, 화사한 가을만큼 상쾌한 기운을 주는 여성이 SIMPAC에 뒀다. SIMPAC 사옥 6층에서 늘 상냥한 미소로 활기를 더해주고 있는 그녀는 안보미 영양사다. SIMPAC 가족들의 균형잡힌 식단과 맛있는 식사를 책임지고 있는 그녀는 SIMPAC의 '미소천사'로 인기를 얻고 있다고. 9월의 어느 아침, 맑은 하늘이 아름다운 6층 테라스에서 안보미 영양사를 만나 보았다.



처음 만난 이를 화사한 웃음으로 반겨줘 상대방도 절로 미소 짓게 하는 사람이 있다. 흔히 알지지만 그런 사람을 만나면 마음을 열게 되고 기분까지 유쾌해진다. 올해 2월부터 SIMPAC 부평에서 근무하고 있는 안보미 영양사는 경력 4년차로 상대를 기분 좋게 하는 미소를 가졌다. 그녀는 SIMPAC 구내식당에서 직원들이 먹을 식단을 구성하고 식재료 발주 및 위생, 인력, 매출 관리 등을 책임지고 있다. "SIMPAC은 대부분 남자 직원들이라 분위기가 딱딱할 거라 생각했는데 예상외로 활기 차고 화기애애한 느낌을 받았습니다."라며 회사에 대한 첫인상을 떠올렸다.

## 직원들이 잘 먹었다며 인사할 때 큰 보람 느껴



직장인들에게 점심은 가장 기다려지고 즐거운 시간이 아닐까. 사옥 6층에 위치한 식당에 들어서면 입구 게시판에 '오늘의 메뉴'가 올라와 있고 그 아래에는 주간 식단표가 적혀 있어 한 주간 어떤 메뉴를 먹는지 미리 볼 수 있다. 매일 점심과 저녁, 그리고 최근 개시한 아침까지, 때마다 다른 식단을 짜는 게 영양사의 주된 업무다.

"아침 식사를 하지 못하고 출근하는 직원들이 많잖아요. 올해 6월부터 아침 식사를 개시해서 일주일에 2~3번은 아침 6시에 출근하고 있어요. 아침 식사로는 간단하게 샌드위치, 주먹밥 등을 내고 있는데, 매번 150명 정도가 이용할 정도로 인기가 좋답니다. 토요일 점심의 경우에는 특별히 면 요리를 제공하고 있고요. 점심 식사는 하루 중에 가장 중요한 끼니이기 때문에, 영양과 식재료 선택 등 메뉴 구성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직원들이 맛있게 식사하는 모습을 볼 때, 그리고 잘 먹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영양사로서 큰 보람을 느낍니다."

SIMPAC인들은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 지도 물어보았다.

"얼마 전에 메뉴 선호도를 조사했는데 많은 분들이 육류를 선택하셨어요."라고 답한다. "주로 남자들이 많고 체력 소모가 많다 보니 힘이 나고 든든하게 속을 채워주는 육류 종류를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고기, 돼지고기 등 양질의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도록 다양한 육류 요리를 식단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내 가족이 먹는다는  
마음가짐으로 정성을 다해’

안보미 영양사는 “식수(먹는 사람 수)를 예측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점”이라고 말한다. 직원들의 수는 정해져 있지만 외부 손님들이 오거나 직원 출장 등으로 인해 인원이 변동되는 경우가 있어 이런 상황을 사전에 파악해서 식수를 조절해야 한다고 한다.

“미리 식수를 예측해 식자재를 발주하고 음식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평소 인원보다 많아서 혹은 음식이 모자라지면 죄송스럽고, 반대로 인원이 예상보다 적을 때는 음식이 많이 남기 때문에 잔반 처리의 어려움이 있지요. 그래서 음식의 양이 알맞게 준비되어 남지도 모자라지도 않을 때면 매우 만족스럽습니다.”

음식은 맛과 영양도 중요하지만 안보미 영양사가 특히 신경을 기울이는 것은 위생이다. 그녀는 “단체로 만드는 음식일수록 내 가족이 먹는다는 정성과 마음가짐으로 임해야 합니다.”라고 말한다. 영양사는 식단만 짜주는 사람이 아니라, 음식과 관련해 주방 안팎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관리하고 처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위생과 정리정돈에 만전을 다하기 위해 주방에서도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이곳저곳을 꼼꼼히 살핀다.

그런 그녀가 SIMPAC인들의 가을철 건강을 위해 추천하는 메뉴는 무엇일까?

“9월과 10월은 버섯의 맛과 향이 가장 풍부해지는 시기입니다. 저칼로리면서 식이섬유와 무기질이 풍부한 고단백 식품이거든요.

살짝 구워 먹거나 볶아서 밀반찬으로 먹으면 아주 좋습니다. 이번 가을, 맛갈스러운 버섯 요리로 영양도 챙기고 미각의 기쁨도 누리보세요. 만약 평소 땀을 많이 흘린다면 건강을 위해서 저염식 보다는, 적당히 염분을 첨가해 간이 밴 음식을 드시는 것도 좋고요.”

일상 속에서 사람들과 소소한 이야기 나누는 것을 좋아한다는 그녀. 음식을 매개로 나누는 대화는 사람 사이를 더 가깝게 만든다며 그걸 직업으로 삼을 수 있는 영양사로서의 하루 하루가 무척 즐겁다고 말한다. 회사 식당에서 맛있게 즐기는 식사 한 끼, 그리고 그녀의 상냥한

미소가 있기에 SIMPAC인들은 오늘도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에너지를 얻는 것이 아닐까. 



밝은 에너지로 주변을 밝히는  
‘친절 지킴이’

SIMPAC  
인더스트리  
배영범 경비



회사를 방문할 때 처음 만나게 되는 사람은 누구일까? 정문에서 맞이하는 경비 직원인 경우가 많다. 웃음과 함께 친절하게 맞아준다면 회사에 대한 호감도가 올라가기도 하기 때문에 단순한 안내를 넘어, 회사에 대한 좋은 인상을 남겨 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직원들은 물론, 방문하는 외부인들에게도 친절하게 대응하며 회사에 대한 호감도를 높이는 데에 도움을 주고 있다는 SIMPAC인더스트리의 배영범 경비를 만나 보자.



바야흐로 100세 시대에 접어들었다고들 하지만, 아직 우리 사회에는 60세가 넘으면 퇴직하여 사회 활동이 끝난다는 인식이 강하다. 수년간 외국계 회사에 다니고 개인사업을 하기도 했던 배영범 경비 역시 60세가 넘으면서 진로를 많이 고민했다고. 젊은 시절 못지 않게 건강한 체력을 갖고 있기에 열심히 일하며 보람을 얻고 싶지만 나이 때문에 일을 찾는 게 쉽지 않았단다. 그러던 중, 지인으로부터 “경비 업무를 해 볼 생각이 있느냐?”는 얘길 들었다. ‘환갑을 넘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무엇이든 한 번 해보자!’ 그렇게 배영범 경비는 SIMPAC인더스트리와 인연을 맺었다.

“지난해 봄에 면접을 보고 그 다음 날부터 SIMPAC인더스트리에서 경비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경험이 없어 잘할 수 있을지 걱정되었지만, 경험보다는 모든 이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자세가 중요한 것 아닐까 하는 마음가짐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일한 것이 벌써 1년이 되었네요. 60대 중반인 지금, 저는 SIMPAC인더스트리에서 제2의 인생을 살아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외부인에게 회사의 첫 인상을 심어주는 것이 ‘경비 업무’

어느 자리에서 어떤 업무를 담당하든지 맡은 일이 있다면 최선을 다하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특히나 경비 업무는 타인에 대한 친절과 배려의 마인드까지 갖춰야 하는 서비스직이다.

“여기 와서 보니 경비 업무, 특히 정문 경비는 첫인상이 좋아야 한다는 것을 느낍니다. 업무차 회사를 방문하는 이들에게는 친절한 안내를 통해 좋은 이미지를 주고, 출퇴근하는 직원들에게는 편안한 인상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복장도 깔끔하게 하고 밝은 얼굴로 사람들을 대하려고 노력하죠. ‘내가 곧 회사의 얼굴’이라는 자부심으로 근무하면 저절로 인상도 밝아지고 즐겁게 일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배영범 경비는 올해 봄, 특별한 방문객을 통해 보람을 느꼈던 에피소드를 들려주었다. 평소처럼 근무하던 어느 날, 회사로 공항 택시가 들어왔다. ‘공항에서 손님이 왔나 보다’ 생각하는데 외국인 3명이 내리는 것이었다. 한 사람은 영국인, 나머지 두 사람은 일본인이었다. 이들을 맞이할 직원이 아직 내려오지 않은 터라, 그는 잠시나마 안내를 해야 했다. “어디에서 오셨나?”라고 영어로 묻고 짧게 대화하면서 이들의 가방을 들어주며 건물 안으로 안내했다. 때마침 직원이 내려와서 이들에게 인사를 하고 나왔다고 한다. “짧은 순간이지만 영어로 얘기를 나누면서 안내를 했습니다. 나중에 들었는데, 그때의 외국인 방문객들이 식사하다가 안내하는 분이 친절하게 대해줘서 좋은 인상을 받았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작은 친절이 방문객들에게 좋은 인상을 준 것 같아 뿌듯한 마음이 들더군요.”

### 사람들을 대면하는 직업, 밝은 표정과 미소로 먼저 다가가기

하루 24시간 교대 근무를 한다는 배영범 경비는 경비실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문에서 출입 차량을 체크하고 하루 4차례, 새벽까지 순찰을 돈다고 한다. 또 출근 시간에는 입구에서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들을 맞이하며 아침 인사를 건넨다고 한다. 하루를 꽉 채워 바쁘게 보내지만, 몸을 움직이는 일이 적성에도 맞고 매사를 긍정적으로 보는 성격이라 일도 즐겁다고 한다. 늘 사람들을 대면하기 때문에 밝은 표정과 미소로 먼저 다가간다는 그는 “스스로 즐겁지 않으면 좋은 표정이 나오기 힘들 것”이라고 말한다.

올해 초, 봉신에서 SIMPAC인더스트리로 바뀌면서 회사의 모든 것이 새로워졌다. 그는 “직원들 모두 새롭게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힘차게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라며 SIMPAC인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웃음이 주변을 전염시키듯, 긍정적인 기운으로 주변에 밝은 에너지를 전하는 배영범 경비. SIMPAC인더스트리의 밝은 내일을 바라는 그의 어깨 위로 가을 햇살이 축복처럼 내려앉았다.





SIMPAC메탈로이  
전기로 A조  
김삼철 선임

## 페달을 밟아 활력을 얻는 '사이클의 달인'

가을은 어디든지 떠나고 싶게 하는 계절이다.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붉게 물든 풍경을 바라보는 것만으로 감성이 솟아난다. 가고 싶은 대로 향하고, 달리고 싶은 대로 페달을 밟으면서 바람을 느끼며 자유로워 지는 순간, 자연을 제대로 만끽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SIMPAC메탈로이 전기로 A조 김삼철 선임에게는 사이클(자전거)로 풍경 속을 달릴 때가 바로 그런 순간이다. 이 가을을 붉은 열정과 행복으로 물들고 있는 사람, 김삼철 선임을 만나 보았다.

Life  
like is  
Riding  
a bicycle



취미가 무엇인지 말해주기라도 하듯 그의 몸은 날렵하고 단단했다. 중년 남성들에게 흔히 보이는 볼록한 배도 없었다. 이것이 사이클의 효과일까. “저는 아직도 식스 팩이 있답니다.”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김삼철 선임은 사이클 탈 때의 즐거움이 떠오르는 지, 얘기하는 내내 얼굴이 밝았다.

“7년 전 쯤 처음으로 사이클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 전에도 생활 자전거는 계속 탔고요. 원래 운동을 좋아해서 헬스장에서 4년 정도 운동했는데 어느 순간 실내가 답답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야외에서 할 수 있는 인라인 스케이팅 등 여러 가지를 해보다가 스릴과 속도감을 느낄 수 있는 사이클을 본격적으로 타게 되었습니다.”

그는 초반에 욕심을 내서 산악자전거를 탔다고 한다. 그런데 굴곡 있는 산길을 다니다 몇 번 넘어져 다치는 바람에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어 사이클로 바꿔 탔다. 그리고 출퇴근도 사이클을 이용하기 시작해 올해로 5년째에 접어들었다고 한다.

“집에서 회사까지 거리가 왕복 35킬로인데 자전거로 여유 있게 가면 40분, 빨리 달리면 25분 안에 도착합니다. 자전거로 출퇴근하면 교통비가 안 들고 아침, 저녁으로 저절로 운동도 되니 일석이조예요. 이 지역은 그리 복잡하지 않아 자전거 타기 매우 좋은 환경이기도 하고요.”



### 사이클은 단순한 취미활동 넘어, 일상의 즐거움이자 활력소

쉴 새 없이 흘러나오는 컵물을 뽑아내는 출탕 작업이 주 업무인 김삼철 선임은 올해 입사 14년 차로 현장에서 잔뼈가 굵었다. 현장에서 늘 긴장감을 갖고 일하기 때문에 근무 외 시간은 몸과 마음을 자유롭게 하는 취미활동으로 피로를 푼다. 그에게 사이클은 단순한 취미를 넘어 일상의 즐거움이자 활력소다. 그래서 교대 근무가 끝난 후, 또는 쉬는 날이면 어김없이 사이클을 타고 나간다. 특히 쉬는 날에는 종일 사이클을 타며 휴식을 즐긴다.

“포항에서 경주 감포 해안도로까지 180km 길을 사이클로 자주 다닙니다. 아침에 출발하면 밤이 돼서야 돌아옵니다. 중간 중간 바다를 끼고 달리는 길은 경지도 아름답지만 가슴 속이 확 트일 정도로 상쾌한 느낌을 준다고 할까요? 또 하나의 묘미는, 맛집이 있거나 경치 좋은 곳이면 어디든 내려 바람 쐬며 구경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내 마음 가는 대로, 바람 따라 기분 따라 즐길 수 있는 것이 큰 매력이지요. 동호회 사람들과 함께 갈 때도 있고 혼자 갈 때도 있는데, 한 번 길을 나서면 종일 달리니 체력이 좋아지고 기분도 말할 수 없이 상쾌합니다.”





그는 얼마 전 안동댐과 낙동강 하구둑을 잇는 낙동강 자전거 길의 약 400km를 종주했다고 한다. 하루에 갈 수 없는 길이라 1박 2일 동안 여행하듯 다녔다고 한다.

“사이클을 타고 여행을 다니듯이 온 가족이 함께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는 사이클로 최고 시속 62km까지 달린다고 한다. 사이클은 속도감이 있고 장시간 타기 때문에 헬멧, 무릎 보호대, 허리 보호대가 있는 배낭을 필히 갖춰야 한다. 또한 사이클 전용 신발과 장갑도 필요하다. 무엇보다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장비는 모두 갖춰야 한다.

### 야외에서 즐기는 자전거, 나태해지지 않고 활력 솟아

김삼철 선임은 올 가을에 달려 본, 경주 감포에서 불국사 가는 길이 무척 아름다웠다고 한다. 붉은 단풍나무가 우거진 길에서 운치와 낭만을 느낄 수 있다면서 가을의 자전거 코스로 적극 추천했다. 또 길가 양 옆으로 삼나무가 우거져 있는, 직선 20km의 제주 516도로를 추천했다. 이곳은 결혼기념일에 아내와 함께 갔는데 아름다운 풍경 속을 달리는 기분이 최고였다고 한다. 그는 사이클을 시작하는 SIMPAC인들에게 “처음에는 일반 자전거를 타고 즐긴 다음, 사이클 관련 동호회에 가입해 차근차근 배우면서 시작하세요.”라고 당부한다.

“사이클을 타면서 성격이 밝고 긍정적으로 바뀌었습니다.”라는 김삼철 선임은 “어디까지 가겠다고 목표를 정해 놓으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근성이 생겼고, 자전거를 타면 항상 밖으로 나오니 나태해지지 않고 활력이 솟습니다.”라고 말한다. 김삼철 선임의 말처럼 자전거는 우리 일상에 여러모로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운동인 듯하다. 자전거 타기에 좋은 계절, 가을을 맞아 많은 이들이 페달을 밟으며 삶의 활력을 얻어 보면 어떨까.



SIMPAC메탈로이  
Roll영업팀  
김재희 대리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긍정요망'

완연한 가을의 정취를 느끼며 도착한 경북 포항. 남구 호동의 공단에 위치한 SIMPAC메탈로이 공장에는 맑은 하늘만큼 차분한 기운이 감돈다. 1층 회의실에 앉아 있으니 곧 만면에 웃음을 띤 김재희 대리가 나타났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하는데, 긍정의 마음은 늘 밝은 미소를 짓게 하는 것 아닐까 싶었다. 쑥스러워 하면서도 조곤조곤 이야기를 풀어가는 김재희 대리에게서 '긍정의 힘'을 느꼈다.



긍정적인 마인드는 어느 정도 타고 나는 것일까, 아니면 본인의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것일까. 살다 보면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다. 사람에 따라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인생이라는 게 매일 즐겁고 행복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긍정적인 사람들은 매사 즐겁고 유쾌하게 생활한다. 김재희 대리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가 가장 많이 한 말은 '감사'였다. SIMPAC메탈로이라는 좋은 회사에 다니고 있음에, 몸이 건강함에, 좋은 동료들과 함께 함에 감사하다고 했다.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 어찌 긍정적인 사람이 되지 않으랴.

2010년 10월에 입사한 김재희 대리는 현재 영남지역 제철회사 및 제지업체를 대상으로 한 Roll영업, 그리고 독일회사의 해외영업을 담당하고 있다. 그는 "입사 초에는 업무에 적응하느라 막막했지만, 차츰 자신감과 열정이 생겼습니다."라며 "모든 게 동료들 덕분입니다. 항상 감사해요."라고 말한다.

"업무를 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의 마음을 잘 알고 맞춰가는 것 또한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가 먼저 상대방을 배려하면, 상대방도 나에게 좋은 마음을 가질 것입니다. 그렇게 화합하면서 팀워크를 이루면, 일도 즐겁고 능률도 오를 것입니다. 앞으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든 찾아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함께 해주는 동료들이 있기에 든든하네요."

**호주에서 청소 아르바이트하며 공부, 힘들었지만 값진 경험**

올해 나이 서른 넷, 총각인 김재희 대리는 "지금까지 평탄하게 지내올 수 있던 것, 그리고 긍정적인 성격을 갖게 된 것은 부모님의 영향이 크지 않나 싶어요."라고 말한다.

"부모님은 지금까지 자식들 앞에서 힘들다는 얘기를 한 번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밖에서 종일 일하고 집에 와서도 힘든 기색 없이 늘 웃는 모습을 보이고, 좋은 것만을 자식들에게 주려고 하셨어요. 이런 따뜻한 마음을 어렸을 때부터 배웠기에 저도 긍정적인 사람이 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살면서 힘들고 어려웠던 적이 언제였는지 묻자, 그는 호주에서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받아 지냈던 경험을 들려주었다. 27살 때 단돈 80만 원을 가지고 비자를 받아 호주로 떠났다. 어학원에 낼 등록금을 벌어야 했기에 처음 두 달 동안은 청소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한다. 대형마트를 몇 군데 돌며 밤 9시부터 다음 날 낮 12시까지, 하루 14시간을 일했다. 그렇게 두 달 동안 일해서 번 돈으로 어학원을 다녔고, 수업 외의 시간에 청소 아르바이트를 계속했다고 한다.



"한 가지 일을 꾸준히 하면 경력이 쌓이기 때문에 청소 일을 꾸준히 했습니다. 6개월 예정으로 왔는데 6개월 동안 청소 아르바이트를 하고 4개월은 어학원에 다니며 영어 공부를 했습니다. 머무는 동안 남들처럼 놀러 다니거나 관광하지 않고 일과 공부만 했던 거죠. 하지만 힘든 시간이었다기 보단 세상을 보는 시야가 넓어지는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오늘 내 옆의 동료들 향해 활짝 웃어주자"**

김재희 대리는 "최근 공장 휴게실에 탁구대가 설치되어 점심시간에 동료들과 탁구를 치는 재미가 쏠쏠합니다."라고 한다.

"핑퐁, 핑퐁, 탁구공이 오가며 내는 소리가 경쾌합니다. 동료들과 즐겁게 탁구를 치면서 땀을 내니 기분이 상쾌하고 몸도 가벼워지는 느낌입니다. 스매싱을 넣어서 상대방을 이길 때는 스트레스까지 다 날아가는 것 같아요."

작은 것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찾고 감사하는 것, 늘 긍정적인 마음자세를 갖춰야 가능한 일일 것이다. 그는 '꿈은 노력을 가능하게 만들고, 그 노력은 꿈을 가능하게 만든다'고 말한 영국의 오페라 가수 폴 포츠(Paul Potts)의 말을 들려주었다. 휴대전화 판매원이던 폴은 가난과 왕따, 중앙수술 등 온갖 어려움과 악조건을 극복하고 한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놀라운 노래 실력으로 일약 스타가 되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단 1%의 희망을 품는다면 가뿐히 일어날 수 있는 용기와 자신감이 생길 겁니다. 저 역시 1%의 가능성이라도 희망으로 삼고 최선을 다하는 SIMPAC인이 되겠습니다."

아직 부족한 점이 많아 늘 배우는 자세로 업무에 임하고 있다는 김재희 대리. "회사가 계속 성장하고 발전하듯 제 역량과 능력도 키워가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모습에서 SIMPAC인의 밝은 미래를 엿볼 수 있었다.

긍정적인 사람은 언제나 밝은 얼굴로 다른 이들을 대한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마음에서부터 기쁨이 우러나 오기 때문에 가능한 것일까. 밝은 얼굴은 주변 사람들까지 기분 좋게 만든다고 하니 오늘 내 옆에 있는 동료들 향해 활짝 웃어 보자. 당신의 미소 띤 얼굴이 많은 이들에게 하루를 활기차게 보낼 수 있는 '긍정의 힘'을 전해 줄 것이다.



호주 어학원에서 함께 공부했던 친구들





자연 속에서 기쁨을 낚는  
**'낙시의 고수'**

SIMPAC메탈  
품질물류팀  
김형곤 사원

살면서 행복을 느끼는 순간은 저마다 다른 법이다. 일상에서 매 순간 소소한 기쁨을 느끼는 사람이 있는 반면, 정해놓은 목표를 위해 정진하다 마침내 성취할 때 비로소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매일 바쁘게 돌아가는 일상 속에서 나만의 행복을 찾기 힘들다면 주말에 잠시나마 스스로 돌아보며, 마음을 평온하게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 여유로운 풍경 속에서 낚시를 즐기는 순간이 가장 행복하다는 남자. SIMPAC메탈 품질물류팀 김형곤 사원을 만나 보았다. 한 주간 열심히 일하고 주말이면 낚시에 폭 빠져 사는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한 유명 광고에서 나왔던 이 문구는 업무 후 '재충전'의 필요성을 말하고 있다. 주중에는 맡은 업무에 충실하고 주말에는 일상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여유를 즐긴다면 삶의 균형을 적절하게 맞출 수 있지 않을까. 당진 토박이인 서른 살 총각, 김형곤 사원에게 '낚시'란 인생의 참된 여유를 알게 해준 취미 이상의 것이다. 조금 과장을 하자면, 낚시에 죽고 낚시에 사는 남자라고 할 수 있겠다.

2012년 2월, SIMPAC메탈에 입사해 현재 품질물류팀에 근무하고 있는 김형곤 사원은 제품 출하 및 원료 입고 등 물류의 출입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관리적이지만 업무 특성상 현장을 바쁘게 돌아다닌다고 한다. 9월 중순이지만 한낮에는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어 꽤 더운 날, 그가 이마에 땀방울이 맺힌 채 SIMPAC메탈 사옥 1층 로비에 들어섰다. 자리에 앉아 음료수로 목부터 축인 그는 '낚시' 이야기가 나오자 이내 눈빛을 반짝였다.

**요즘이 제철인 서해안 쭈꾸미, 풍성한 가을 미각 선사**

“이곳 당진 근처에 있는 바다와 저수지에서 낚시를 합니다. 요즘에는 서해안에 쭈꾸미가 제철이라,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 쭈꾸미와 광어를 많이 잡아요. 주로 충남 보령 오천항 등에 나가서 낚시를 하는데, 새벽 3시에 집에서 출발하면 4시 30분쯤 선착장에 도착해 승선 명부를 작성합니다. 그리고선 배에 올라 바다로 나가죠. 쭈꾸미는 물때를 잘 맞추는 것이 중요한데 물살이 잔잔해야, 쭈꾸미가 잘 잡힙니다.”

요즘에는 아이스박스를 가득 채울 만큼, 수백 마리의 쭈꾸미를 잡는다고 한다. 잡은 쭈꾸미는 선상에서 데쳐 초고추장에 찍어 먹고, 라면 끓일 때 넣어서 먹기도 한다고. 남은 것은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주기도 하고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가 맛깔난 요리를 해주신다. 이렇게 여러모로 낚시의 재미를 더해주는 쭈꾸미 잡이는 9월이면 그 철이 끝난다고 한다. 10월부터는 우럭이 많이 잡히는데 회를 쳐서 먹거나 매운탕을 끓여먹는다. 대개 바다에서 낚시를 하면 잡은 고기를 배 위에서 바로 회를 떠서 먹는데 그 맛이 가히 일품이라고 한다.





“어렸을 때 아버지와 함께 저수지와 바다에서 낚시를 하며 붕어와 우럭, 광어 등을 잡았어요. 어린 저에게는 제일 재미있는 일이었죠.”

**적막과 고요 속에서 입질 오는 순간, 짜릿함 느껴**

김형곤 사원은 어릴 때 아버지를 따라 인근 저수지에 다니면서 자연스럽게 낚시를 배웠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낚싯대를 주고 직접 해보도록 하면서 낚시의 재미를 일찍 터득하게 된 것이다. “어렸을 때 아버지와 함께 저수지와 바다에서 낚시를 하며 붕어와 우럭, 광어 등을 잡았어요. 어린 저에게는 제일 재미있는 일이었죠. 어른이 돼서도 낚시를 즐기는 것이 계속 이어진 셈입니다. 쉬는 날이나 주말에는 어김없이 낚시 장비를 챙겨 떠납니다.” 바다낚시와 민물낚시에 사용하는 낚싯대가 서로 다르다고 한다. 바다낚시에는 낚싯대 하나만을 사용하고 민물낚시는 앉아서 여러 개를 펼쳐 놓는데, 보통 10대까지 사용한다. 낚시에 빠져들면서 그동안 낚시 장비에 투자한 돈이 꽤 되지만, 유일하게 좋아하고 즐기는 취미이기에 아깝지 않다고 한다. 김형곤 사원이 말하는 낚시의 가장 큰 매력은 무엇일까. “밤새 어두컴컴한 산자락 저수지에 앉아 있다가 적막과 고요 속에 입질이 오는 순간, 짜릿함을 느낍니다. 바다낚시를 할 때 우럭은 ‘두드럭 두드럭’ 바닥을 짚는 소리가 나고, 광어는 인조 미끼를 탁 치는 느낌이 나죠. 꾸꾸미는 낚싯대를 내려 봤을 때 인조 미끼에 물결하며 걸려드는 느낌이 있고요.”

**기쁨 공유할 배우자 만나고 싶어**

제작년 즈음, 김형곤 사원은 동료 15명과 낚싯배를 빌려 당진에 있는 한진포구로 놀러 갔다. 바다 위에서 고기를 낚고 나눠먹으며 함께 즐긴 시간들이 즐겁고 소중한 추억으로 남아있다고 한다. 기회가 되면 다시 한 번 시간 맞춰 떠나고 싶다는 게 그의 바람이다. 그는 고기를 잡기 위해서가 아니라, 탁 트인 자연 속에서 바람을 쐬며 몸과 마음에 휴식을 주기 위해 낚시를 간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낚시란 최고의 ‘취미’이자 ‘힐링’이다. 요즘도 주말이 다가오면 ‘어디로 떠나볼까’ 고민하며 마치 소풍을 가듯 설레고 행복하다고 한다. 새벽에 일찍 나가는 아들을 위해 어머니는 김밥을 싸주신다고 하니 영락없는 소풍이다. 그는 이제 함께 여행을 다니면서 낚시의 기쁨을 공유할 수 있는 짝을 만나고 싶다. 그동안 낚시에 빠져 있어 누굴 만나 볼 시간이 없었는데 이제는 장가를 가야 하니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사람 좋은 웃음을 짓는다. 아리따운 반려자를 만나, 부부가 함께 낚시를 떠난다면 그 행복이 배가 될 것이다.

**당신을 칭찬합니다**

**SIMPAC**

**구매팀 정진희 대리가 구매팀 송성강 대리에게**

어느 부서의 어떤 분을 칭찬하고 싶으신가요?  
이유는 무엇인지요?

구매팀 송성강 대리를 칭찬합니다. 업무에 대한 책임감이 강하고 소재 담당자로서 프레스 납기 일정에 늦지 않도록 적시, 적소에 소재 수급을 하고 있습니다. 불량 발생 시에도 신속하게 대처하여 생산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노력하는 점이 특히 본받을 만합니다

두 분만의 특별한 인연이나 공통점이 있나요?

5년 넘게 생산팀에서 송 대리와 함께 일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구매팀으로 부서를 옮겼고요. 저보다 8개월 먼저 구매팀으로 옮긴 송 대리가 제 입장을 잘 이해해줘 빠르게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애로사항을 들어주고 조언이나 충고를 잘 해줘서 고맙습니다.

**조립4반 신현만 반장이 국내영업팀 정영길 팀장에게**

어느 부서의 어떤 분을 칭찬하고 싶으신가요?  
이유는 무엇인지요?

국내영업팀 정영길 팀장입니다. 예전에 정영길 팀장이 사원으로서 지방영업소에 현장 교육을 받으러 왔을 때 열정을 갖고 배우는 자세에 무척 인상 깊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팀장으로 근무하면서도 변함없는 그의 자세를 볼 때마다 제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됩니다.

서로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있나요?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사수와 부사수 같은 느낌으로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대화합니다.

**SIMPAC인더스트리**

**생산관리팀 김경민 사원이 경영지원팀 재무Part의 이보라 사원에게**

어느 부서의 어떤 분을 칭찬하고 싶으신가요? 이유는 무엇인지요?

경영지원팀 재무Part의 이보라 사원입니다. 항상 밝고 친절하게 대해주는 모습을 본받고 싶습니다. 기분도 좋아지고 같이 웃게 되거든요. 또, 업무적으로 모르는 부분이 많은 제게 친절히 알려주며 힘이 되어주어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분만의 특별한 인연이나 공통점이 있나요?

갓 입사한 제게 이것저것 알려준 이가 이보라 사원이었습니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 것

을 알게 된 후 늦게 퇴근할 때면 위험하다고 기다려 준 적도 있고요. 늘 저를 편히 대해주기에, 앞으로도 거리낌 없이 서로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보다 더 가까운 언니, 동생 사이로 지내고 싶은 바람입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해요!

**SIMPAC메탈로이**

**Roll영업팀 김재희 대리가 가공반 정우성 사원에게**



어느 부서의 어떤 분을 칭찬하고 싶으신가요? 이유는 무엇인지요?

가공반 정우성 사원입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반드시 해낸다!”라는 긍정적인 마인드로 결국 해내고 마는 열정적인 자세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책임감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일하는 방법을 탐구하는 점, 모든 일에 주인정신으로 임하는 점을 본받고 싶습니다. COATER, APPLICATOR ROLL은 교환주기가 짧아 대부분 납기가 촉박하고 업무량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늘 헌신적으로 업무를 마무리 해주신속히 납품할 수 있습니다. 고객사에서 “SIMPAC메탈로이 네요, 입고검사 안 해도 됩니다.”라는 말을 들을 때, 참 고맙습니다.

두 분의 공통점은 무엇인가요?

앞으로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싶나요?

주인정신을 가지고 업무 개선 방법을 탐구하는 점, 가진 것을 나눠 주길 좋아하며 힘든 일이 있으면 먼저 나서는 점이 비슷합니다. 긍정적인 에너지가 넘쳐 함께 있으면 기분이 좋습니다. 지금처럼 희로애락을 같이 나누며 허물없는 의형제가 되고 싶은 바람이 있습니다.

**SIMPAC메탈**

**생산팀 남호문 반장이 생산팀 이상훈 조장에게**



어느 부서의 어떤 분을 칭찬하고 싶으신가요? 이유는 무엇인지요?

생산팀의 이상훈 조장을 칭찬하고 싶습니다. 항상 동료들을 먼저 챙겨주고 도와주며 맡은 바 임무에 충실한 동료입니다. 어느 날 혼자 살고 있는 제가 몸이 아파서 누워 있는데 집으로 죽을 끓여서 갖다 준 적이 있습니다. 집 생각이 나던 차에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모릅니다. 항상 고맙게 생각해요.

두 분만의 특별한 인연이나 공통점이 있나요?

SIMPAC메탈로이의 선배로 만났습니다. 같이 산악회 활동을 하면서 더욱 가까워졌고요. 지금은 SIMPAC메탈로이 옮겨와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서로 돕고 아끼며 즐거운 직장 생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Dream Life

## 나만의 파란색을 찾아서 당신이 원하는 행복은 어떤 모습입니까?

행복에 대한 논의는 2천년 전부터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느끼는 감정이 행복이라고 주장한 에피쿠로스가 있었는가 하면, 도덕적으로 올바른 삶을 살아야 행복하다고 주장했던 아리스토텔레스도 있었지요. 이 논쟁은 오늘날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행복이란 긍정적인 감정을 유지하면서 전체적인 삶의 만족감을 느끼는 것이라는 주장도 있고, 삶의 의미와 가치를 찾아 자아실현을 이루는 것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어느 쪽을 주장하는 사람이든 누구나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토록 소망하는 행복이란 무엇일까요?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돈을 많이 벌면, 좋은 사람을 만나면, 일에서 성공하면 과연 행복해질까요? 특정한 조건이 충족된다면 누구나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이란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글\_자유기고가 배나영

### 과연 행복이란 무엇일까?

우리나라의 국민행복지수가 OECD 34개 국가 중 최하위권이라는 조사결과는 익히 알고 계실 겁니다. 행복지수는 국내총생산과 같은 경제적 가치뿐 아니라 삶의 만족도, 자살률, 평균수명 등 삶의 질을 포괄적으로 고려해 산출한 지표이지요. 코스타리카나 부탄처럼 1인당 GDP가 1만 달러도 채 되지 않는 국가가 국민행복지수의 최상위권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무엇이 행복지수를 결정짓는 것일까요? 도대체 행복이란 무엇일까요?

행복은 모든 사람이 바라는 것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단순한 쾌락과는 다릅니다. 쾌락은 동물적인 감각이 순간적으로 왔다가 빠르게 사라지는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기분이 좋아지는 상태지요. 그래서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은 자극의 정도를 높이거나 새로운 자극원을 찾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시적인 쾌락보다는 지속적인 행복을 추구하기 마련입니다. 장기간에 걸쳐 잘 살고 있다는 만족감을 의미하겠죠.

행복에 대한 가장 보편적인 정의는 '주관적 안녕감'입니다. 특별한 즐거움을 느끼는 것보다는 사건이 없는 '안녕한' 상태를 의미하죠. 이를 위해서는 직장과 건강, 인간관계, 사랑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만족도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구하는 아름다움이나 명성, 부와 같은 요소들은 결국 만족도를 높여 행복에 이르기 위한 조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행복 자체가 다른 무엇을 얻기 위한 조건이 아니기에 행복은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순수한 목적이 되겠지요.

### 오해하기 쉬운 행복의 조건들

행복에 대한 최신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놀랍기도 하고 위안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떤 환경에 있느냐가 행복을 좌우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환경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은 10% 정도입니다. 유전자와 교육이 50%를 차지하고, 나머지 40%는 대인관계와 우정, 공동체 활동, 일, 취미생활과 같은 것들입니다.

이처럼 삶의 다양한 영역들은 행복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예상과는 다른 결과를 보일 때도 많지요. 예를 들면 가정에서 아내보다 남편이 더 행복감을 많이 느낄수록 부부가 헤어질 확률이 높아집니다. 행복하기 위해 낳은 자녀들이 오히려 행복의 걸림돌이 되기도 하죠. 결혼으로 인한 행복감은 2년 동안 높아지다가 그 후에는 떨어진다고 합니다. 결국 결혼하기 전과 비슷한 수준의 행복을 느끼게 되지요. 젊은이가 더 행복할 거라는 예상과 달리 노년에 접어들면서 더욱 행복해지기도 하고, 행복했던 경험을 글로 남기는 것이 오히려 행복감을 떨어뜨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실직을 당하는 것보다 출퇴근 시간이 20분 늘어나는 편이 5배나 더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도 있지요. 자, 이제 우리가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돈은 많을수록 더 행복해질까요?

###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을까?

현대인에게 지금보다 더 행복해지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질문했더니, 나라와 계층에 관계없이 '돈'이라고 대답한 사람이 가장 많았다고 하지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행복에 대한 단 하나의 질문을 고르라고 하면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을까?'라는 질문일 겁니다. 그러면서도 사람들은 돈과 행복이 별로 관계가 없다고 믿고 싶어 합니다.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을까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돈이 있다면 포근한 잠자리와 따뜻한 음식을 먹을 수 있으니 당연히 행복하겠지요. 하지만 의식주를 해결할 정도의 돈이 있다면 그보다 더 많은 돈이 생겨도 행복감이 크게 증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행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정신 건강, 안정적인 일, 애정 넘치는 사생활, 안전한 공동체, 자유, 도덕적 가치라고 합니다. 이외로 돈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20년간 많은 사회과학 단체나 심리학자들이 소득수준과 행복 사이에 뚜렷한 연관성이 없다는 연구 결과를 꾸준히 내놓았습니다. <타임>지에 따르면 행복을 가능하게 하는 요소로 돈은 고작 14위를 차지했습니다. BBC가 제작한 행복에 관한 다큐멘터리는 '부는 건강과 같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돈이 없으면 불편하지만 있다고 다 행복한 것은 아니라는 얘지요. 그러니 행복해지려면 돈이 아닌 가치 있는 무언가를 쫓아야지 않을까요?



### 성공하면 행복한 게 아니라 행복하면 성공한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성취해야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프로젝트를 완료하면, 다이어트에 성공하면, 넓은 집으로 이사를 하면 될 것이라고 말이지요.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성취한 후에도 행복이 오랫동안 지속될까요? 손 아치는 하버드 대학 인기 강좌 1위를 10년간 놓치지 않은 '행복학' 강좌의 기획자이자 행복학의 권위자입니다. 그는 경쟁에 휘둘리며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하버드 재학생들을 상담하면서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하버드대 학생들이 우울하고 불행한 이유는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성공해서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행복하기 때문에 성공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시아계 여학생에게 '여성은 수학을 잘 못한다'고 말하면 수학성적이 떨어지지만, '아시아 사람들은 수학을 잘한다'고 말하면 수학성적이 오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정서, 즉 행복감이 능력을 높이고, 성공에 이르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 행복해지는 방법 10가지

행복 프로젝트에 참여해 두 달간 다음의 10가지 실천사항을 따라서 한 사람들은 인생이 매우 만족스럽고 흥미진진하게 바뀌는 긍정적인 경험을 했습니다. 밑져야 본전입니다. 쉬운 실천 방안이니 SIMPAC인들도 한 번 따라서 해볼까요?

1. 운동을 하라. 일주일에 3회, 30분씩이면 충분하다.
2. 좋았던 일을 떠올려 보라. 하루를 마무리할 때마다 당신이 감사해야 할 일 다섯 가지를 생각하라.
3. 대화를 나누라. 매주 온전히 한 시간은 배우자나 가장 친한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라.
4. 식물을 가꿔라. 아주 작은 화분도 좋다. 죽이지만 말라.
5. TV시청 시간을 반으로 줄여라.
6. 미소를 지으라. 적어도 하루에 한 번은 낯선 사람에게 미소를 짓거나 인사를 하라.
7. 친구에게 전화하라. 오랫동안 소원했던 친구나 지인들에게 연락해서 만날 약속을 하라.
8. 하루에 한 번 유쾌하게 웃으라.
9. 매일 자신에게 작은 선물을 하라. 그리고 그 선물을 즐기는 시간을 가지라.
10. 매일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풀라.

## 행복을 원하는 당신에게 권하는 책 BOOKS FOR YOU



#### <행복이란 무엇인가> by 하임 사피라, 21세기북스

아주 평범한 제목을 갖고 있어 선뜻 손이 가는 책은 아니지만, 읽기 시작하는 순간 왜 그가 이스라엘의 명문 텔아비브 대학에서 최고 강의상을 수상했는지 이해하게 됩니다. 저자의 유머감과 쉬운 설명에 책장이 술술 넘어가기 때문이지요. 저자는 유년 시절 읽었던 동화책 구절에서부터 이름만 아는 철학자들의 명언까지 자유자재로 인용하면서 행복이란 무엇인지 명쾌하게 설명합니다. 이 책에서 독자들은 웬만한 철학자보다 더 지혜로운 곰돌이 푸를 만날 수 있고, 어른들의 욕망을 들여다보는 여린왕자와 여우, 시간의 본질을 알려주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를 만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데카르트, 파스칼, 쇼펜하우어, 니체와 같은 수많은 사상가들이 등장해 한 마디씩 거듭니다. 하임 사피라는 우리에게 익숙한 이야기들을 재치 있게 변용해 들려주면서, 삶에 있어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 깨닫게 해줍니다.

#### <행복도 선택이다> by 이민규, 더난출판사

누구나 피할 수 없는 고통을 겪는 순간이 있지요. 사랑하는 사람이 배신할 때도 있고, 갑작스런 해고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사고가 일어나기도 하고, 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부정적인 감정을 계속 유지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심리학 박사인 저자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를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인생의 행복은 결국 우리의 선택에 의해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그는 행복한 삶을 가로막는 부정적인 사고를 버리고, 실패와 시련을 극복하는 긍정적인 사고를 하면서 행복과 성공을 부르는 적극적인 태도를 갖출 것을 말합니다. 이 책을 읽다 보면 행복이 무엇인지, 행복의 조건은 무엇인지에 대한 이론적인 고민에서 벗어나 직접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적극적인 태도를 갖게 됩니다. 미소를 지으면 좋은 일이 생긴다는 '안면피드백 이론',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가장 바람직한 태도인 '공감적 소통', 다른 사람의 비난이나 비판을 터닝포인트로 전환시키는 '전환전략', 행복한 인간관계와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위한 최고의 전략 '생각 뒤집기 기법' 등 책에서 설명하는 내용들을 생활에 적용해 보세요. 긍정적인 의미를 찾아내는 연습을 하다 보면 행복한 삶을 만들어가고 있을 겁니다.

#### <행복의 조건> by 조지 베일런트, 프리터어

하버드 대학 연구팀은 1930년대 말에 입학한 2학년생 268명의 삶을 72년간 추적하며 행복의 조건이 무엇인지 연구했습니다. 그 결과 생의 마지막 10년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는지 아닌지는 50세 이전의 삶을 보고 예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말하자면 행복은 사람의 힘으로 통제할 수 있는 행복의 조건 7가지를 50대 이전에 얼마나 갖추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행복과 건강을 좌우하는 요인들을 얼마나 통제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기 위한 '행복의 조건' 7가지는 돈이나 명예, 학벌 따위가 아니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조건은 '고난에 대처하는 자세'였지요. 나머지는 평생교육, 안정적인 인간관계, 비흡연, 적당한 음주, 규칙적 운동, 적당한 체중이었습니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끊임없이 배우고, 친구를 사귀고, 건강을 위해 노력하며 가족들과 잘 지낸다면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저자인 조지 베일런트는 현재 하버드대 의과대학 교수로서 성공적인 노화와 인간의 행복에 대해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의 다른 저서인 <행복의 조건>이나 <행복의 비밀>과 같은 책들도 읽어보면 행복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 <행복하게 일하는 연습> by 코이케 류노스케, 랜덤하우스

우리는 인생의 대부분을 직장에서 보냅니다. 배우자나 연인과 지내는 시간보다 직장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길지요. 그래서 일과 행복은 밀접한 관계를 갖습니다. 최근의 연구 결과 행복한 사람들은 상사로부터 더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스님인 코이케 류노스케는 출가하기 전에 회사원과 편의점, 카페 아르바이트, 입시학원 강사 등으로 일한 경험을 살려 책을 썼습니다. 현대사회에서 돈을 번다는 것의 의미, 근로자로서의 삶, 일을 한다는 것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했던 자신의 경험을 살려 스트레스를 뛰어넘고 즐겁게 몰입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그는 하고 싶은 일을 찾겠다는 착각에서 벗어나고, 더 좋은 직장이 있을 것이라는 환상에서 벗어나며, 마냥 놓고 싶다는 욕구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합니다. 지금 여기, 바로 이 순간에 집중하는 사람은 그런 스트레스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직장생활을 하면서 의욕이 없을 때, 집중이 안될 때, 스트레스가 심할 때 이 책을 찬찬히 읽어보면 좋을 듯 합니다.



새로운 기계,  
더 나은 품질에 대한  
열정으로!

SIMPAC인더스트리 가좌공장 생산팀의  
산업기계Part와 공작기계Part,  
그리고 품질지원팀

Talk Talk 참석자

SIMPAC인더스트리 가좌공장

생산팀 산업기계Part : 이형주 과장, 김효수 사원  
공작기계Part : 강승원 대리, 임병국 계장  
품질지원팀 : 김준영 계장



상사와 부하는 명령과 복종으로 이뤄지는 수직 관계만은 아니다. 하루의 많은 시간을 보내며 함께 일하다 보면 서로 도움을 주고 응원을 아끼지 않는 선후배 관계에 더 가까워진다. 같은 부서에서, 혹은 다른 부서에서 늘 마주치고 부대끼는 선후배들이 한 자리에 모인다면 어떤 이야기길 나눌까? 지난 9월 22일, SIMPAC인더스트리 가좌공장의 생산팀 산업기계Part 이형주 과장과 김효수 사원, 공작기계Part 강승원 대리와 임병국 계장, 그리고 품질지원팀 김준영 계장이 한 자리에 모여 그들의 일과 미래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각 부서에서 맡고 있는 업무를 설명해 주세요.

**이형주 과장** : 산업기계Part는 고무에 화학약품을 섞어 형상을 만드는 1차 가공기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야에 특화된 제품으로, 타이어 성형기계와 고무 성형기계를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지요.

**임병국 계장** : 공작기계Part의 업무는 부품 수급이 60%, 생산 스케줄 및 인원 관리 쪽이 30%, 서류 작업 10%의 비중으로 구성됩니다.

**김준영 계장** : 품질지원팀은 산업기계 생산 지원부서로서, 각 부서의 품질 향상을 위해 검사 및 개선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주 업체에서 들어오는 가공품에 대해서도 품질 검사를 실시하고 부적합 제품에 대한 재발 방지 조치를 하는 등 제품 출하까지 문제 없이 진행 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각자 맡고 있는 역할을 무엇인가요?

**김효수 사원** : 산업기계Part는 크게 기계Part와 부품만 따로 나가는 단품Part로 나뉘집니다. 기계 전체적인 것을 관리한다고 할 수 있죠. 저도 그 팀의 일원으로서 제작 스케줄부터 생산관리, 부품 수급, 인원관리 등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형주 과장** : 저는 기계 조립품의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한다고 할 수 있겠네요. 제품에 대한 주문 배분, 설치 등 제작부터 생산까지 관리하고 있지요.

**강승원 대리** : 주로 드릴기의 생산 일정 관리를 맡고 있습니다. 가공품에 대한 스케줄을 조정하며 결품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요. 또 가공팀과 입고 일정을 조율하며 설게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준영 계장** : 저는 품질지원팀에 있다 보니 각 사업부 별 부적합 보고서, 그리고 품질경향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외주업체로부터 들어오는 제품에 대한 수입검사를 실시하고 완조립 시 성적서도 만들고요.

선후배 간 팀워크가 좋다고 들었습니다. 일하면서 본 서로의 강점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김효수 사원** : 이형주 과장님은 생산 관리 경력만 10년인 베테랑이십니다. 그만큼 제작 공정에 대해 다양한 경험을 갖고 계시죠. 다년간의 업무 노하우와 온화한 카리스마로 후배들에게도 모범이 되는 분이라고 말하고 싶네요.

**이형주 과장** : 김효수 사원은 이제 입사 4개월째인데 모든 면에서 많이 배우고 노력하는 모습이 선배로서 기특하게 느껴지는 후배입니다. 일하면서 조언을 많이 해주는 편인데, 잘 받아들이고 자신의 것으로 습득하려고 노

# SIMPAC人 in Passion



생산팀 산업기계Part : 이형주 과장



생산팀 산업기계Part 김효수 사원



생산팀 공작기계Part 강승원 대리



생산팀 공작기계Part 임병국 계장



품질지원팀 김준영 계장



력하거든요. 일할 때 늘 밝고 긍정적인 것도 보기 좋은 모습 중 하나입니다.

**임병국 계장** : 강승원 대리님은 매사에 꼼꼼하고 능동적으로 일하며 대처 능력 또한 탁월합니다. 후배들을 격의 없이 대하며 고민을 잘 들어주는 것도 장점이구요. 게다가 술도 잘 사줍니다. (웃음)

**강승원 대리** : 임병국 계장은 곰 같이 우직하게 말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스타일입니다. 책임감이 강해 밤늦게까지 혼자 남아 일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요. 기본 됴됨이도 훌륭해 선배들에게 각듯한 모습이 참 보기 좋습니다.

### 업무에 있어 개선해야 할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이형주 과장** : 산업기계Part는 매우 다양한 산업 기계를 만들고 있는데, 종류가 많고 복잡하다 보니 아직 표준화가 안 되어 있습니다. 큰 뼈대는 잡혀 있지만 세밀한 업무 시스템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것이죠. 무엇보다 표준화 작업이 먼저 이뤄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준영 계장** : 고객이 원하는 납기일을 맞추느라 모든 생산과정이 바쁘게 돌아가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납기일도 중요하지만 한 발 더 나아가 품질 향상에 노력을 더 기울인다면 좋겠습니다.

**강승원 대리** : 공작기계Part는 부품 수급이 업무의 60%를 차지하다 보니 생산 관리 쪽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계획 생산, 즉 미리 만들어 놓은 제품을 판매하는데 아직 전산 시스템이 미비한 편이거든요. 업무 전산화가 이루어 진다면 보다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 각자 부서에서 어떻게 역량을 키워갈 것인지 포부를 들려주세요.

**이형주 과장** : 그동안 많은 기계를 만들었지만 향후에는 하나의 생산라인을 전부 만들어 보고 싶은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새로운 제품 개발에 적극 나섰으면 좋겠습니다. 기존에 생산하고 있는 산업기계를 뛰

어님을 새로운 기계를 발굴하여 SIMPAC인더스트리만의 주력 제품을 또 하나 창출하면 좋겠습니다.

**김효수 사원** : 아직 배울게 많은 신입사원이다 보니 우선 기계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앞으로 다양한 경험을 쌓고 싶습니다. 또 우리 부서가 해외출장이 많은 편인데, 언어의 장벽을 느끼지 않도록 외국어 공부에도 열심히 매진하겠습니다.

**김준영 계장** : 우리 주요 고객 중 하나가 일본의 요코하마 타이어입니다. 지난 번 그곳의 바이어가 찾아왔을 때 일본어 구사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어요. 다음에는 세계 어느 나라 바이어가 오더라도 적극 응대할 수 있도록 영어, 일본어 등 여러 외국어 습득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강승원 대리** : 기회가 되면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 원리에 대한 세부적인 지식과 설비 계산 방법 등을 심층적으로 공부하여 역량을 더욱 키우고자 합니다.

**임병국 계장** : 현재 공작기계Part 인원이 부족한 편인데, 성심껏 선배님을 도와 생산일정 관리 등 업무에 만전을 다하는 것이 제 역할이 아닌가 합니다. 공작기계Part에서 두루두루 지식과 경험을 쌓아가며 '멀티 플레이어'로서의 역량을 키워가겠습니다.

20년 이상 축적된 노하우와 국내 최고의 제품 생산 라인 및 설비 등을 보유하고 있는 SIMPAC인더스트리. 그 독보적인 경쟁력이 더욱 빛날 수 있는 이유는 회사에 대한 SIMPAC인들의 강한 자부심과 성장을 향한 뜨거운 열정 덕분 아닐까.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날 만남을 통해 그들의 무한한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다.



## 현장의 뜨거운 쇳물만큼, 보람의 온도도 매일 상승!

SIMPAC인더스트리 남동공장 주조팀 생산관리Part

인천 아시안게임이 열리고 있는 인천광역시. 눈부신 가을 햇살이 이 도시 전체를 비추며 축제에 활력을 더하는 듯 하다. 이곳에 위치한 SIMPAC인더스트리 남동공장에도 밝은 햇살이 내리쬐는 가운데, 빈틈없이 돌아가는 생산 현장의 활기가 가득하다. 완성도 높은 작업을 위해 소중한 땀방울을 흘리고 있는 SIMPAC인의 이야기를 듣고자, 그 중에서도 주조팀 생산관리Part의 구성원들을 만나 보았다. 생산관리Part에는 안태영 팀장을 비롯해 성하세 부장, 박진규 차장, 이충훈 대리, 김병훈 대리, 노병호 사원, 이명현 사원, 김동희 사원 등 8명이 근무하고 있다. 한 마음으로 땀뿜 뽐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최고의 제품 생산을 위한 하루를 보내고 있는 생산관리Part 사람들을 만나 보자.



MINI INTERVIEW  
당신의 행복은 무엇입니까?



안태영 팀장

아침에 눈을 뜨고 출근할 직장이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현장에서 일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행복입니다.



성하세 부장

우리가 만든 제품이 오대양 육대주를 향해 나아갈 때, 제품이 출하되는 모습을 볼 때 뿌듯하고 행복합니다.



박진규 차장

설비가 완료되고 조업이 끝났을 때, 안도감과 함께 작은 행복감이 밀려옵니다.



이충훈 대리

뜨거운 열기 속에서 쇳물을 붓고 난 후 시원한 물 한 잔을 마실 때, 뭐니 뭐니 해도 가장 행복한 순간이죠.



김병훈 대리

쇳물이 끓는 뜨거운 현장에 있다가 무사히 조업을 마치고 퇴근해 아내의 얼굴을 보았을 때, 안도감과 함께 행복함을 느낍니다.



노범호 사원

오늘 하루도 무사히 일을 마치고 휴가분한 마음으로 퇴근할 때, 뿌듯하고 행복하죠.



이명현 사원

직원들이 흘리는 땀방울에서 노고와 열정을 배울 수 있어 언제나 행복합니다.

생산관리Part에서는 어떤 일을 하나요?

**안태영 팀장** : 생산관리Part의 주 업무는 고객으로부터 주문을 받아 적기에 제품을 공급하는 일입니다. 기계 몸체에 들어가는 부속품, 즉 기계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생산한다고 할 수 있죠. 또한 사출기 및 콤프레서 부품, 선박 엔진에 들어가는 소재도 생산해서 납품하고 있어요.

SIMPAC인터스트리에 입사한 시기, 그리고 담당하고 있는 업무를 소개해 주세요.

**안태영 팀장** : 1987년에 입사하여 지금은 생산에 관련된 대외 업무, 그리고 남동공장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공장 전체를 관리하는 공장장 역할이라고 할까요?

**성하세 부장** : 저는 1986년에 입사했습니다. 쇳물을 녹여 끓이는 용해 작업과 국내 단위 생산을 독점하고 있는 칠드롤(Chilled Roll : 주물의 일부 표면에 금형을 대어 급랭한 다음 백산화(白銹化)하여 만든 롤)에 대한 작업을 총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장의 공정관리 및 재질에 대한 모든 것을 관리하고 있지요.

**박진규 차장** : 1997년에 입사했습니다. 주조 생산에 필요한 전기 및 기계 설비를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지 보수부터 신규 설비에 대한 계획과 설계 등도 담당하고 있고요.

**이충훈 대리** : 생산관리Part는 용해, 조형 1반, 조형 2반, 지원Part로 이뤄져 있는데 저는 현재 조형 1반에서 생산관리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2006년에 입사했구요. 계획과 일정을 짜고, 관리하는 업무를 맡고 있지요.

**김병훈 대리** : 2005년에 입사하여 공장 내 전기 및 기계 설비의 유지 보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박진규 차장님을 도와 생산 설비의 보수 업무를 맡고 있어요.



**노범호 사원** : 2012년에 입사해 올해로 3년차에 접어들었네요. 저는 조형 2반에서 공정 및 주조 방안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명현 사원** : 지난해 입사한 막내입니다. 주조공장에서 생산된 모든 제품의 출고를 담당하고 있어요. 저희 제품은 수출이 60%, 내수가 40%를 차지하는데, 주로 창원과 부산으로 가는 제품의 출하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남동공장 주조팀 생산관리Part만의 강점은 무엇인지요?

**이충훈 대리** : 공작기계 분야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SIMPAC인터스트리의 가장 큰 강점은 도면에 있는 형태대로 완벽하게 제품을 만들어 내는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칠드롤은 국내에서 우리 회사만 유일하게 생산하고 있어 가히 독보적인 경쟁력을 갖췄다고 할 수 있겠지요.

**박진규 차장** : 생산관리Part는 규격 제품을 일률적으로 찍어 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제품을 생산해 내고 있습니다. 게다가 거래하는 업체 대부분이 대기업이고 주조 공장 단일 업종으로는 가장 규모가 크고 역사가 오래되었기에 그 저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고 자부합니다.

일하면서 가장 보람을 느낄 때는 언제인가요?

**박진규 차장** : 우리 일의 특성상 새벽에 나와 일하는 경우가 많아 보통 아침 6시 50분이면 모두들 출근하니, 다들 아침형 인간인 셈이죠. 그만큼 잠을 쫓아가며 현장에서 부지런히 움직여야 하기에 열정과 끈기가 없다면 힘들어 못할 겁니다. 그럼에도 그 새벽에 쇳물을 끓여 출탕했을 때는 뜨거운 쇳물만큼 감동과 보람도 남다르다고 할 수 있어요.

**김병훈 대리** : 쇳물을 주입하고 출탕할 때에는 '래들(Ladle : 전로에서 취련이 완료된 용강을 담은 그릇)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출탕 용기를 싣고 가다 멈추면 쇳물이 녹아 사고가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출탕 작업을 할 때는 모두 긴장하며 안전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직원들이 항상 비상 대기를 해야 하고요. 그렇다 보니 사고 없이 무사히 업무를 수행했을 때 가장 보람이 크네요.

협동심을 기르는 우리 Part만의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안태영 팀장** : 1년에 한두 번 야외에서 파티를 하며 친목을 다집니다. 성하세 부장님의 지인이 운영하는 농장 원두막이 있어요. 그곳에서 맛있는 음식을 나누며 간의 노고를 치하하고 회포를 풀니다. 회사에서 벗어나 탁 트인 자연 속에서 스트레스를 풀고 서로 속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어 무척 뜻깊은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성하세 부장** : 가끔 배를 빌려 함께 바다낚시를 나갑니다. 팀원들과 한 배를 타니까 공동체 의식도 더 생기고 낚시도

즐길 수 있어 모두가 좋아합니다. 서로 단합하고 팀워크를 다지는 가운데 동료애도 더욱 생기는 것 같아요.

생산관리Part의 일원으로서 바람이나 포부가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성하세 부장** : 품질 안정을 통해 생산성이 향상되기를 바랍니다. 생산은 수익과 연결되고 생산성은 품질에서 비롯되니까요. 생산성 향상에 더욱 주력하겠습니다.

**박진규 차장** : 올해 우리 회사는 새로운 방향을 잡고 다시 나아갈 수 있는 추진력을 얻었습니다. 성하세 부장님 말씀처럼 앞으로 더욱 좋은 품질의 제품을 위해 최상의 설비를 유지하고자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신입의 초심으로 돌아가 이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을 깊이 있게 공부해 후배 양성에도 기여하고 싶고요.



**김병훈 대리** : 원칙과 표준을 준수하고, 안전사고 없는 사업장이 되도록 먼저 실천하고 앞장서 노력하는 SIMPAC인이 되겠습니다.

**안태영 팀장** : 현재 주조팀 생산관리Part는 정예 멤버들만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소주 정예다 보니 개인 업무량이 많지만 각자 자부심을 가지고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요. 모두가 한 배를 타고 항해하는 마음으로 일치 단결하여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일에 매진합니다!

### 66 SIMPAC인의 가을 나들이 01

## 자전거를 타고 달려서 만끽하는 경주의 풍경



SIMPAC인더스트리 경영지원팀 재무Part 이보라 사원

#### 친구와 떠난 가을 여행

가을이 막 시작될 무렵인 9월 초, 학창시절 단짝 친구와 수학여행의 메카인 경주에 다녀왔습니다. 심야 버스를 타고 5시간에 걸쳐 도착한 경주는 서늘한 바람과 상쾌한 공기가 피부로 느껴져 기분 좋은 여행을 예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 자전거대여소 문이 열릴 때까지 몇 시간을 기다린 후 자전거를 빌려 미리 계획해 놓은 코스로 페달을 밟아 이동하며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짙은 가을 햇살이 조금 따가웠지만 자전거를 타며 시원한 바람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어 좋았습니다.

첫 번째 코스는 경주의 대표적인 유적지 천마총이었습니다. 신라시대의 유물들을 보면서 감탄하고 조금은 탐을 내기도 하며 평소에는 관심 없던 역사지만 재밌게 둘러보았습니다. 천마총은 푸르른 숲과 아담한 연못을 끼고 있어 천천히 걸어 다니며 산책하기에 좋은 코스였습니다. 이어서 찾은 두 번째 코스는 경주의 필수 관광지라는 교촌마을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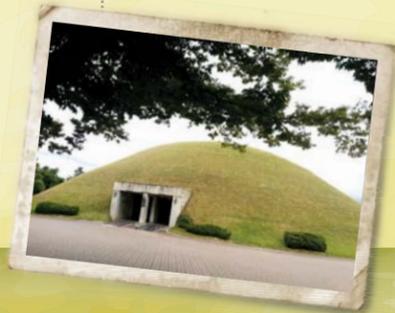
이곳은 한옥집이 모여 있는 곳으로 도자기 만들기 등 직접 체험 할 수 있는 장소가 많아, 아이가 있는 가족들이나 커플이 와서 이런 저런 체험을 직접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곳에는 '교촌김밥'이라는 맛집이 유명하다고 하는데 때마침 점심시간이라 그 명성대로 맛도 좋을지 궁금해 하며 가게 앞에 줄을 서서 김밥을 샀습니다. 시원한 정자에 친구와 함께 나란히 앉아 먹어 본 교촌김밥은 평소 먹던 김밥과 달리 속재료의 반이 계란 지단으로 되어있어 좀 더 담백한 맛이었습니다. 이런 독특함 때문에 경주의 대표 맛집이 되지 않았을까 하

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배를 채운 뒤 또다시 자전거에 올라 세 번째 코스인 국립 박물관으로 갔습니다. 국립 박물관 안에는 초등학교 시절 사회 교과서에 나왔던 석기탑과 다보탑 등 여러 유적들이 한 자리에 모여 있었습니다. 덕분에 힘들이지 않고 편안하게 관람할 수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짜여진 일정대로 바쁘게 움직이다 보니 어느덧 저녁시간이 되어 친구와 저는 무엇을 먹을까 식사메뉴를 골라보았습니다. 주변을 보니 불고기정식과 떡갈비정식을 파는 식당들이 많아 여기 오면 저걸 먹어야 하는 구나 싶어 눈에 띄는 식당에 들어가 푸짐한 저녁을 먹었습니다.

이날 마지막 코스이자, 여행의 하이라이트로 꼽을 수 있는 곳은 야경이 아름다워 유명한 안압지입니다. 하늘이 어둑해지면 많은 사람들이 안압지로 모였고 저와 친구 역시 설레는 마음으로 안압지에 입장해 둘러보면서 왜 이곳의 야경을 사람들이 극찬하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유적이 조명의 빛으로 연못에 데칼코마니처럼 똑같이 비치는 모습이 무척 아름다워 SIMPAC인들과 함께 보고 싶은 마음에 사진도 많이 찍었습니다.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는, 각 지역마다 유명한 음식이나 특산물이 있듯 경주에는 경주빵이 유명하다는 말을 듣고 구입한 경주빵 한 상자를 들고 흐뭇한 마음으로 귀가했습니다. 하루 일정이라 짧은 시간이었지만 꽤 알찼던 경주 여행 - 바쁜 SIMPAC인들에게 좋은 것을 보고 머리도 식힐 수 있는 이곳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 SIMPAC인의 가을 나들이 02

## 예천 문화 탐방을 다녀와서

SIMPAC메탈로이 2공장 가공반 임일훈 사원



아직 늦더위가 가시지 않은 9월 초, 포항에서 2시간 30분을 달려 도착한 이곳은 물맛 좋기로 소문난 '예천 금당실 마을'입니다. 차 안에서 금당실 마을의 옛 유례를 꼼꼼히 기록 중인 우리 딸이 보이시나요? 참 귀엽죠?



금당실 마을은 예천 서북단의 소백산 자락에 위치하고 있으며 예로부터 선비와 관료가 많이 배출되어 '금당맛질 반서울'로 불리며 우리나라 십삼지 가운데 한곳으로 정감록에 기록되어 있는 살기 좋은 곳이라더군요. 공기가 아주 맑아 눈과 코가 시원하고 가을이 물씬 느껴지더군요. 점심은 예천에서 제일 맛있고, 순대로 유명한 용궁면에 위치한 한 식당에서 마음껏 먹었네요. Tip. 용궁면에 가니 '토끼간 빵'도 유명합니다. 기회가 되면 꼭 맛보세요.



배를 채우고 난 다음 도착한 곳은 이 시대의 마지막 주막인 '삼강주막'입니다. 예천 풍양면에 위치하고 있으며, 1900년에 지어진 이 주막은 나들이객들의 허기를 면하게 해주고 보부상들의 숙식지로, 때론 시인묵객들의 유상처로 이용된 건물입니다. 아~참! 삼강주막을 감싸고 있는 강줄기의 이름은 회룡포입니다. 그 줄기를 따라 걸어보니 예천의 정기를 더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우리가 갔던 날이 '삼강주막 주말 야외공연'의 날이라 관람객이 꽤 있더군요. 풍물패 사이에 뒤편은 저희 아들 보이시나요?



점심을 먹고 삼강주막을 간 터라 배가 불러 막걸리를 못 마신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아쉬운 마음을 뒤로 하고 다음 도착한 곳은 '초간정'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백과사전인 대동운부군옥을 저술한 초간 권문해 선생이 세우고 심신을 수양하던 곳입니다. 예천 권씨 초간종택 자리가 '명당'이라 좋은 기운 많이 받고 왔습니다.



예천하면 빼놓을 수 없는 곳, 사찰 용문사. 절관 앞 뒤로 산이 있는 사찰인데요. 용문사는 보물이 많기로 유명한 곳입니다. 대장전, 목불좌상 및 후불탱, 윤장대, 팔상탱, 교지 등 다섯 개의 보물과 경상북도 문화재 자료인 자운루가 있습니다. 특히 윤장대는 오래된 꽃살문이 아름답고, 공예품으로는 국내 사찰 가운데 유일하게 소장된 회전식 장경각입니다. 고려명종 1173년에 제작되었고 원래 경전을 넣어두는 책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만들었다고 하네요. 일년에 딱 두 번 3월 3일과 9월 9일 윤장대를 돌리는데요, 윤장대를 돌리면 부처님 말씀을 읽는다 하여 어떠한 소원도 이루어진다고 전해집니다. 아쉬운 점이라면 우리가 갔을 땐 보존 작업 중이라 윤장대를 멀리서 바라만 봤어요. 보물을 눈 앞에 두고도 만져보지 못한 것이 아쉽더군요. 예천의 국보급 보물도 보고 좋은 기운과 정기를 우리 가족 모두가 느낄 수 있었던 하루였습니다. SIMPAC인들도 가족과 함께 예천으로 떠나 좋은 기운을 가득 받아 오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 모두 행복한 가정 꾸리시길 기원합니다.

SIMPAC인의 가을 나들이 03

높고 푸란 하늘 아래, 밀양 얼음골

SIMPAC메탈로이 1공장 전기로 C조 김상협 사원

조원들과 떠난 특별한 추억 여행

힘들고 지칠 때도 있지만 서로 다독이며 웃음으로 이겨내는 우리 C조. 뜨거운 여름도 더 뜨거운 동료애 덕분에 무사히 이겨낼 수 있었다. 이렇게 늘 최선을 다하는 조원들과 함께 지난 9월 25일, 자연 속에서 휴식을 취하며 특별한 추억을 남길 수 있는 소소한 여행을 다녀왔다. 우리 C조의 단합을 위해 특별 제작한 단체 티셔츠까지 맞춰 입고 가을바람에 힘든 일 모두 날려 보낼 수 있는 여행이었다.

울산, 밀양, 청도, 경주의 접경지에는 가시산을 중심으로 해발 1,000m 이상 되는 9개의 산이 모여 있다. 수려한 산세와 풍광을 자랑하며 유럽의 알프스와 견줄 만하다 하여 영남 알프스라 이름 붙여진 곳이다. 그 중 산세가 가장 높고 아름다운 밀양 얼음골 주변으로 여행을 떠났다. 이곳 정상에는 주변에 늘어서 있는 유명산과 은빛물결 억새밭, 재약산 수미봉과 사자평을 아우르는 장관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하늘정원과 전망대가 있다. 주변 자연보호를 위해 등산로는 폐쇄됐지만, 케이블카를 이용하여 정상에 오르내릴 수 있었다. 케이블카를 타고 오르내리는 동안 안내원이 주변 경관에 대해 친절히 설명해주는데 특히 건너편 백호바위는 정말 멋지고 신비로운 경관을 자랑했다. 정상에 도착해 하늘정원이라 불리는 길을 걷다 보니 전망대가 나왔다.

아직 여름의 기운이 남아 있는 듯 땀이 흘렀지만, 늘 착용하던 마스크를 벗고 자연의 맑고 시원한 공기를 맘껏 들이킬 수 있어서 더운 줄 몰랐다. 오느라 고생했다고 보답이라도 하듯 전망대에서 내려다보는 풍경은 숨막힐 듯한 장관이었다.



시원한 계곡물에 온몸이 개운한 얼음골

그렇게 자연에 흠뻑 취해 있는 사이 어느덧 점심 시간이 되었다. 정상에는 간단히 식사를 할 수 있는 테이블이 마련되어 있어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준비해 온 음식을 먹을 수 있었다. 출발 직전 죽도시장에서 구입한, 집 나간 머느리도 돌아온다던 가을 전어와 도다리 회! 바다에서 난 생선을 산 정상에서 먹으니 입안에서 그냥 사르르 녹아 내리는 것만 같았다. 식사를 마친 우리는 호박소로 향했다. 움푹 파인 모양이 절구의 일종인 호박을 닮았다 하여 붙여진 이름인데, 유명 예능 프로그램 1박 2일에서도 다녀갔을 정도로 아름다운 밀양 8경 중의 한 곳이다. 맑은 물과 아름다운 경관은 북북북이 아니더라도 미구 뛰어들고 싶어지도록 만든다. 하지만 수심이 깊은 곳은 6m나 된다고 하니 함부로 뛰어들진 말자.



마지막으로 천연기념물 224호인 얼음골 결빙지를 찾았다. 4월 초순에서 7월 하순까지 얼음이 얼고 8월 초순부터 얼음이 녹기 시작한다는 신비한 곳이다. 매표소에서 도보로 20분 정도 걸어 오르면 60° 경사가 있는 돌밭이 나온다. 이 돌밭이 얼음이 언다는 결빙지인데 9월이라 아쉽게도 얼음은 보지 못했다. 하지만 아직 바위 틈틈이 싸늘한 찬바람이 불어오는 듯 했다. 겨울이 아닌 봄에서 여름까지 얼음이 언다니 그 바람이 싸늘한 만도 하다. 결빙지를 지나 10분 정도 걷다 보면 가마불 폭포를 만날 수 있는데 암수 두 개의 폭포가 지척에 두고 흘러내린다.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물줄기에 다가서기도 전에 시원함을 느낄 수 있었다. 그렇게 한참을 폭포의 시원함에 젖어있자 발길을 돌리고, 내려오다 계곡물에 발 담그고 가지는 조원들의 말에 등산화를 벗고 계곡물에 발을 디더 보았다. 물에 닿는 순간 한겨울에 맨발로 눈을 디디고 서 있는 듯 등골이 오싹했다. 여기서 왜 얼음골이라 하는지 온몸으로 알 수 있을 만큼 계곡물이 시원해 발만 담가도 구석구석 시원한 것처럼 개운했다.

짧은 여행이었지만 자연 속에서 여유 있는 마음으로 조원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던 이날 나들이로, 한층 더 두터워진 동료애를 느낄 수 있었다. 다시 한 번 동료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안고 아쉬움을 뒤로 한 채 포항으로 향했다. 얼마 남지 않은 2014년, C조 김용호 주임부터 올해 입사해 늘 열심히 막내 김상민 사원까지. 모두 하나 된 모습으로 서로 다독여 주고 함께 웃으며, 어떤 일이라도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는 SIMPAC메탈로이의 핵심 - C조가 되기를 바라며 여행 후기를 마친다.

# SIMPAC NEWS

## SIMPAC홀딩스

### 한국 조정대표팀, 2014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金 2개·銀 5개로 역대 최고 성적

#### - 최진식 대한조정협회 회장, 시상 및 만찬 통해 노고 치하

한국 조정대표팀이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역대 최고 성적을 거두며 대한민국 조정의 새 역사를 썼다. 조정 경기 마지막 날인 9월 25일, 자유진(화천군청 소속)이 여자 경량급 싱글스컬 종목에서 금메달을 딴 것을 끝으로 한국 조정대표팀은 총 금메달 2개, 은메달 5개의 쾌거를 거두었다. 인천 아시안게임 이전까지의 최고 성적은 2006년 도하 아시안게임의 금메달 1개, 은메달 2개, 동메달 1개였다. 대한조정협회 제14대 회장을 맡고 있는 SIMPAC그룹 최진식 회장은 이날 메달 시상과 만찬 등을 통해 선수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한국 조정의 밝은 내일을 다짐했다. 지난 5월 23일, 대한조정협회 대의원 14명의 만장일치로 회장에 당선된 그는 "2013년 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를 성공리에 개최했고 그 열기를 이어받아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등의 굵직한 국제대회를 잘 치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힌 바 있다.



9월 24일 국내외 조정 관계자 저녁 만찬



9월 25일 여자 싱글스컬 메달 시상식



9월 25일 한국 조정대표팀 점심 만찬



# SIMPAC NEWS

## SIMPAC



### 2014 표준의 날, 국가표준화대상(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 수상

SIMPAC은 지난 10월 14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서 개최된 '2014 세계 표준의 날' 기념식에서 표준화부문 유공단체 '국가표준화대상(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을 수상하였다. 이번 시상식은 국가의 기술과 표준을 관장하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주최하고 한국표준협회가 주관하였다. SIMPAC은 1995년 프레스 업계 최초 KS인증, 60여 종의 CE마크 획득, 표준기반 경영체계를 통한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의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하였다.



### 일·학습 병행제 약정 체결식

SIMPAC은 지난 9월 18일 한국폴리텍대학 남인천 캠퍼스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과 일·학습 병행제 약정을 체결하였다. 기업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인력채용을 위해 일·학습 병행제 사업에 참여하여 양자간 상호 협력기로 하였다.

## SIMPAC메탈로이



### 일·학습 병행제 약정 체결식

지난 8월 22일 한국산업인력공단 포항지사에서 SIMPAC메탈로이와 당해 공단 간 일·학습 병행제 약정 체결식이 있었다. 이날 체결식에서 SIMPAC메탈로이 송호석 대표이사는 "기업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절실하던 차에 좋은 제도를 만났으니 전문가들과 함께 우수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국산업인력공단 윤석호 포항지사는 "기업의 인적자원 교육과 개발에 공단의 힘을 보탬 수 있어 기쁘다. 물심양면 아끼지 않고 지원하도록 하겠다."며 화답했다.

#### \* '일·학습 병행제'란?

기업의 구인난과 구직자의 취업난 사이의 미스 매치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 기업은 전문 교육기관의 도움을 받아 회사에 맞는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전문 교수인력을 양성하여 직접 교육하고 인증한다. 구직자는 해당 기업에 먼저 취업한 뒤 일과 학습을 병행하여 해당 직무에 대한 체계적인 훈련을 거쳐 인증을 받고 나면 그 학력 등을 인정받아 인사 상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다.

# ♥ Congratulations ♥

## 祝 결혼

아름다운 가을을 맞아 선남선녀들의 결혼 소식이 들려오네요. 새로운 출발하는 SIMPAC인들에게 축하의 인사를 건네주세요.



9월 13일  
SIMPAC 재무기획팀  
장원서 사원



9월 20일  
SIMPAC 품질지원팀  
한완수 대리 &  
경영지원팀 장영미 사원



9월 27일  
SIMPAC 개발팀  
오승준 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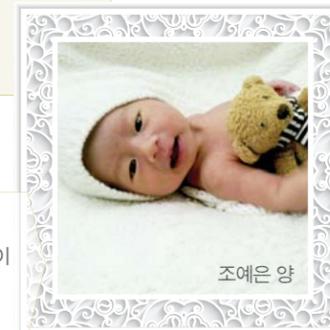


11월 8일  
SIMPAC홀딩스  
이엔지부문 생산기술팀  
박기원 사원



## 祝 득녀

10달 동안 엄마 뱃속에서 자라난 SIMPAC인의 자녀들이 세상의 빛을 보았습니다. 예쁜 공주님들의 앞날을 축복해 주세요.



8월 20일  
SIMPAC메탈로이  
합금철생산팀  
조영문 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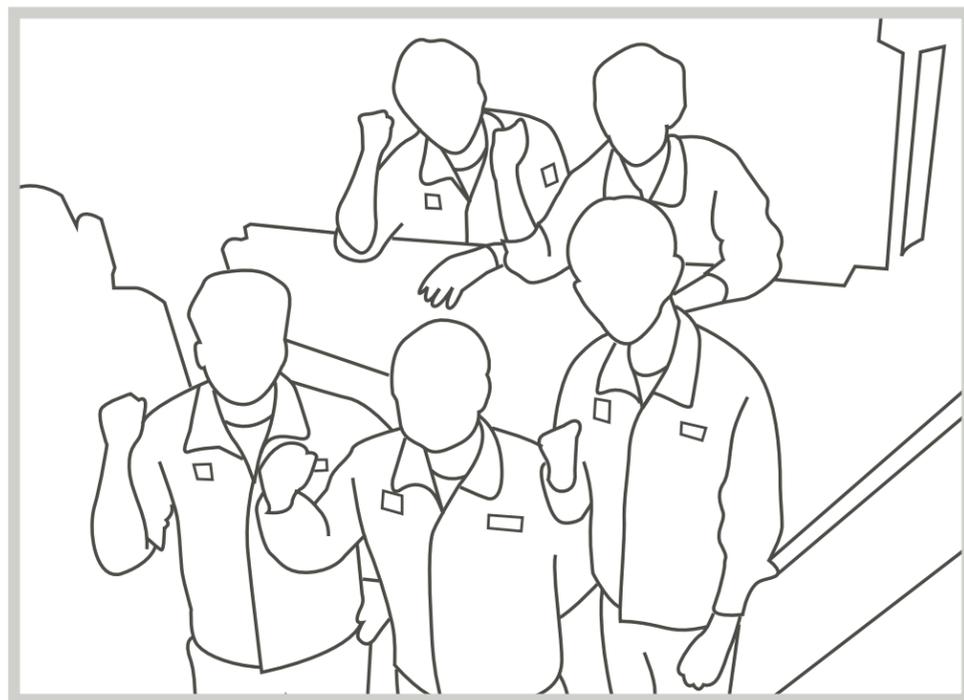
조예은 양



8월 27일  
SIMPAC인더스트리  
품질지원팀  
김준영 계장

김수하 양

## 다른그림찾기 답지



답은 총 네 군데에 있습니다.  
알아보기 쉽게 표시하여 각 사  
사보 담당자에게 전달해주세요.

### <참가자 정보>

소속: .....

성명: .....

## 다른그림찾기

왼쪽 사진과 다른 점이 오른쪽 사진에 네 군데 있습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은 답지에 체크하여 11월 7일까지  
각 사 사보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세요. 정답자 중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



### 다른그림찾기 지난 호 당첨자

**SIMPAC홀딩스 이엔지부문**  
생산품질팀 조영기 사원 / 생산기술팀 송희영 사원

**SIMPAC**  
국내영업팀 차희진 사원 / 설계팀 김지훈 사원

